

종합보도

헌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30일 '송갑석 전대협 의장 불법연행 및 노점권타도 투쟁' 동맹인 실천대회'중 또다시 중문으로 불법 난입한 경찰들.

11월 총궐기투쟁 돌파구 확산

전대협 송갑석 의장 불법연행 30일 전국 동시다발 구출투쟁

지구·민중·통일을 염원하는 전국 일반민 청년학도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잡아 온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송갑석(전남대) 제4회 의장이 지난 24일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 구속되어 다가오는 11월 총궐기투쟁과 더불어 전대협차원의 송의장구출투쟁이 전개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제따라 연행 아날날 25일 전대협은 '노태우정권의 송갑석의장 불법 강제연행과 관련한 전대협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노경정이 법과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통일을 단합하는 데러단체임을 규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송의장 구출과 장기집권아부복대를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대협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송의장 구출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송의장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박성태·이계문군 행정고시 2차합격
본교 박성태(국문4)·이계문(신경84)군이 제34회 행정고시 제2차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7일 총부처서 발표한 총 1백779명의 합격자중 본교는 2명이 합격, 내달 15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국내 최초 '학교채' 발행

재정난 해소, 16억원 규모

본교는 내년부터 재정난완화의 일환으로 국내최초로 학교채를 발행하게 된다. 총16억에 달하는 이번 학교채 발행은 10만원권 1만장, 30만원권 1천장, 50만원권 4백장, 1백만원권 1백장등 모두 1천1천5백장으로 학부와 동문들을 중심으로 무이자 매각할 계획이다.

이러한 학교채발행은 본교를 비롯 단국대, 경기대, 명지대, 한신대, 대구대, 계명대 등 총 7개 대학에서 준비중으로 발행은 문교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진행이 가능케 된다.

도서관 은풍기교체

2층창 설치 검토도

도서관 은풍기교체 2층창 설치 검토도 겨울철을 앞두고 중앙도서관

당 독재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 전국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광주경찰서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를 받아오던 중 지난 24일 은산중이던 동료 아파트에서 3백여명의 진경과 안기부 요원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제따라 연행 아날날 25일 전대협은 '노태우정권의 송갑석의장 불법 강제연행과 관련한 전대협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노경정이 법과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통일을 단합하는 데러단체임을 규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송의장 구출과 장기집권아부복대를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대협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송의장 구출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송의장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박성태·이계문군 행정고시 2차합격
본교 박성태(국문4)·이계문(신경84)군이 제34회 행정고시 제2차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7일 총부처서 발표한 총 1백779명의 합격자중 본교는 2명이 합격, 내달 15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이어, 이과대 학생회장 이광현(수학4)군은 선거투쟁 결의에서 얼마전의 총학운영위 결과를 통해 학생회사업이 분열되고 와해된 현시점을 고려, 이번 선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정립을 통한 학생회 중심의 단결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총궐기 공투위준비위원장 이진현(경영·4)부총학생회장은 백상체전을 통한 단결된 학생회의 모습으로 학생의 날 및 민중대회를 기념해 노점권완전타도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제의했다.

한편, 투쟁결의문 낭독이 끝나고 오후4시에 학생들은 중문기둥투쟁을 전개했는데 이과대에서 경찰은 지난 17, 19일에 이어 또다시 최루탄과 백물단을 교내에 난입시키고 이날 대회를 저지했다.

총학선거 세척 발표

서울·경주 내달 21·22일 실시

서울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 및 제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안성준·국문4)는 지난 22일 중선위규정을 공고하고 선거시행세칙을 통과시켰다.

이번 선거제에 따르면 총학생회총86조에 의거, 4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임무보자는 3백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6회기등록을 필한자로써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등록을 받게 된다.

본교생 5명 공판

'반미구국전선 허구'진술

'반미구국전선'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소년감호원(무·4), 김봉준(야간경영·4)과 김진영(영문·4), 윤남진(경영·85), 권미영(수교·4)의 1차심리공판이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며 모두 오후1시부터 시작된다. 한편 투표는 21·22일 양일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중앙도서관·동국관앞등가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와관련 총·부회장 규정인 신설된 이번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등록 마감 및 후보자 자격은 6하기등록을 필하고 학생회비를 납부 한 사람으로 4백명 이상의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총학 사무실)에 등록하면된다.

대총 의장 선거 실시

김득연·심철신조 단독출마

제23대 총대의원회 정부회장에 김득연(국문3)·심철신(사회3)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너·나 동학 그리고 전진' 백상체전, 오늘부터 3일간 실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 백상체전이 '너·나 동학 그리고 전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교

내일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경주캠퍼스 '통일 백상체전'이 지난 24일부터 경주 설립 13환돌림 맞이 화합의 무대를 마련했다.

세계는 각국목 결승과 함께 마라톤대회가 오후3시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초청공연이 오후 5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리게 되며 오후6시부터는 만해광장에서 폐막식을 겸한 학생의 날 기념 및 민중대회 사수와 11월 총궐기투쟁대회가 열리게 된다.

보수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가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파소비와 투기, 퇴폐 향락을 바로 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내리면서 참 묘한 감정이 일었다.

다시 메아리 속의 울림 같은 것

위임직에서 그는 국민앞에 무엇을 약속 했느냐 생전에 듣지 못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한 말은 약속수의 돈벌 속셈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 비유보다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리라.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경주 '생화학' 신설-43개 과 분할모집

91학년도 입시요강과 관련, 본교는 경주캠퍼스 1개과 신설, 사범대 교직적성검사·면접의 성적 반영을 내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경주 '생화학' 신설-43개 과 분할모집

91학년도 입시요강과 관련, 본교는 경주캠퍼스 1개과 신설, 사범대 교직적성검사·면접의 성적 반영을 내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경주 '생화학' 신설-43개 과 분할모집

91학년도 입시요강과 관련, 본교는 경주캠퍼스 1개과 신설, 사범대 교직적성검사·면접의 성적 반영을 내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경주 '생화학' 신설-43개 과 분할모집

91학년도 입시요강과 관련, 본교는 경주캠퍼스 1개과 신설, 사범대 교직적성검사·면접의 성적 반영을 내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경주 '생화학' 신설-43개 과 분할모집

91학년도 입시요강과 관련, 본교는 경주캠퍼스 1개과 신설, 사범대 교직적성검사·면접의 성적 반영을 내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문교부와 민자당은 교원임용에 대한 위헌적 경과조치 입법화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전국 사립사범대학 교수일등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정부의 국립사대 우선임용을 비합리적으로 정당화해 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위헌판결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후 문교부는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1991년부터 교원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차별없이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방침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가리라는 것을 모든 국민과 더불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연식 문교부장관과 민자당 최각규 정책의장의 당정회의에서 국립사대 출신의 높은 선발비율을 보장하는 경과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보에 접하면서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국립 출신의 우선임용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지금, 국립의 집단적 이익을 반영하는 경과조치 그 자체도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장된 위헌행위의 연속이다.

그동안 문교부는 국립출신의 상치과목 교사를 임시교원양성소를 통하여 배출하려고 했으나, 그 부당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자 그 방침을 일단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여론이 어느정도 잠잠해지자, 해당교과를 전공한 우수한 사립사대 출신의 예비교사들이 수없이 적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립사대 출신의 임용을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임시교원양성소를 재설치하고 상치과목 교사를 교육현장에 배치하는 등 교육의 본질을 더욱 저해하는 조치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교부의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임용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국립사대의 편파된 이익만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에 와서도 문교부는 우선임용제도하에서 국립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차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경과조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인 명분없는 아지에 밀린 편향된 정당화일뿐, 사태의 전체적 시각을 상실한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첫째, 1953년 이후 긴긴 세월동안 위헌적 법률에 의해 희생당해 온 사립사대 출신의 권리는 한번도 고려해 본 일이 없으면서, 이제 위헌판결로 국립우선임용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립사대출신의 권리를 증시하는 문교부의 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과연 문교부는 누구를 위한 문교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국립사대 우선임용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오랫동안 위헌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제도상의 특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이 내려진 지금, 국립사대생의 보호차원에서 계속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발상은 논리의 오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교직은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특정집단의 취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립우선의 임용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의 의미는 이러한 제도가 질 높은 교사양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기때문에 타당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사실상의 국립우선의 조치를 강구하는 문교부의 행위는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의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문교부와 민자당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이를 비호하는 일부 언론을 국민여론으로 오판하지 말고, 위헌적 교원임용 경과조치의 입법화를 즉각 중지하고 공명하고 합리적인 교원임용제도를 1991년부터 즉각 실시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문교부는 1953년 이후 위헌적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사립사범대학 출신자의 교직선택권을 박탈하고 국·사립을 차별대우한 비민주적 처사를 깊이 반성하라.

2. 문교부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당일(10월8일)발표했던 "1991년도부터 교원공개임용"의 당초 방침을 즉각 변경없이 시행하라.

3. 국립사범계 출신에게 일정비율이상 임용 운운하는 문교부의 발상은 또 하나의 위헌적 처사이며, 이종의 해탈부여임을 엄중히 밝힌다.

4. 문교부는 1953년 이후, 위헌적 제도로 인해 사립사범대학의 학생들과 사학이 입은 실제적 피해를 보상하라.

5. 문교부는 편향된 일부 여론에 급급하지 말고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타당한 교사임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6. 국·사립 학생 누구를 막론하고 교사후보생들은 어떠한 특혜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정한 공개임용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1990년 10월 25일

전국사립사범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사립사범대학 학장협의회

학술기회

헌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관성적인 모습 고쳐나가야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

< 7 >

우리는 아직도 학생회에 소수의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운동권' 학생과 '일반' 학생들 사이에 여전히 분리된 경계선이 자리잡고 있음을 본다. 학생회에서 '간부' 혹은 '활동가'로 불리우는 '운동권'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은 정치적 각성수준이나 생활방식, 문화, 정서에서 나르고 직업에 대한 전망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의 이해와 요구, 정서의 차이가 있는만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에 있다. 운동권 학생들의 선도적 실천 활동이, 대중의 발전을 촉매한다는 본래적 지위가 퇴색한 소수의 고립된 활동, 무모한 싸움으로 계속 그 위치를 점한다면 운동권과 일반학생들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자주적인 학생회의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품성과 자세란 무엇인가

학생회가 건설되기 전에는 family라는 형태의 싸움이 선 도적인 투쟁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정치적인 각성과 의식을 담당했다. 그러나 학생회가 건설되면서부터 올바른 대중운동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대중에 기반한 활동, 대중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중노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품성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에 있다. 운동권 학생들의 선도적 실천 활동이, 대중의 발전을 촉매한다는 본래적 지위가 퇴색한 소수의 고립된 활동, 무모한 싸움으로 계속 그 위치를 점한다면 운동권과 일반학생들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자주적인 학생회의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 ◇글 실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87~90현재)
 4. 회조직 골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투의 문제-계열체계 I
 6. 학회건설과 선전·문화계열-계열체계 II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
 8. 총평-정리

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예를들어 할일이 없어도 수업시간에 인들고다니거나, 습관대로 교내를 슬리퍼를 신은 채로 활보한다던가 등등이다. 흔히 학생회실은 여기저기 유인물이 나뉘고 신나뉘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관성적으로 잡히는 집회, 무리한 강령은 불과 2~3%만의 실천과 98%의 무관심이 뒷받침된다.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동아의 1만학우라고 말하는 학생들중 학생회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지난번 학생회에 대한 골간체계 점검에서 그 수가 불과 15% 미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로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와 자신은 별 상관없고 학생회가 학생회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학생들의 자주성을 옹호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방식, 습관, 세계관등을 존중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을 존중하고 학생회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담기위해서는 조직도 다양해지고 활동방식도 다양해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원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들대로의 조직으로 뛰어 도와주고, 고사공부를 하려는 사람들 또한 그들대로의 지향을 존중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을 중요시해야 한다. 모든조직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학생회사업에 있어서도 한번, 두번의 사회과학세미나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시련은 사람, 실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등은 학생회사업의 주인이자 목적인 사람을 대외화시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소중히 만나는 속에서 진정하 나되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사업방식을 가져야 한다.

운동권-일반학생 차이 없애야 과 생활 중심으로 일상적 요구 아는 것이 중요 정치집회 고집... 관성만 심화

학생회가 건설되기 전에는 family라는 형태의 싸움이 선 도적인 투쟁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정치적인 각성과 의식을 담당했다. 그러나 학생회가 건설되면서부터 올바른 대중운동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대중에 기반한 활동, 대중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중노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품성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에 있다. 운동권 학생들의 선도적 실천 활동이, 대중의 발전을 촉매한다는 본래적 지위가 퇴색한 소수의 고립된 활동, 무모한 싸움으로 계속 그 위치를 점한다면 운동권과 일반학생들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자주적인 학생회의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에 있다. 운동권 학생들의 선도적 실천 활동이, 대중의 발전을 촉매한다는 본래적 지위가 퇴색한 소수의 고립된 활동, 무모한 싸움으로 계속 그 위치를 점한다면 운동권과 일반학생들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자주적인 학생회의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학생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중적인 사업방식, 관성적인 사업작풍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앞으로의 학생회 모습과 학생회 활동가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품성으로 학생회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가.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은 결코 하루이틀에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국공운동이 장기적이고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 듯이 학생회의 개조와 대중들의 참여도 학생회활동가들이 학생들의 생활공간(강의실, 도서관, 동아리방, 학회실등)으로 꾸준히 찾아가고 거기서 일을 해나갈때 가능한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자주성을 옹호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방식, 습관, 세계관등을 존중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을 존중하고 학생회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담기위해서는 조직도 다양해지고 활동방식도 다양해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원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들대로의 조직으로 뛰어 도와주고, 고사공부를 하려는 사람들 또한 그들대로의 지향을 존중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을 중요시해야 한다. 모든조직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학생회사업에 있어서도 한번, 두번의 사회과학세미나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시련은 사람, 실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등은 학생회사업의 주인이자 목적인 사람을 대외화시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소중히 만나는 속에서 진정하 나되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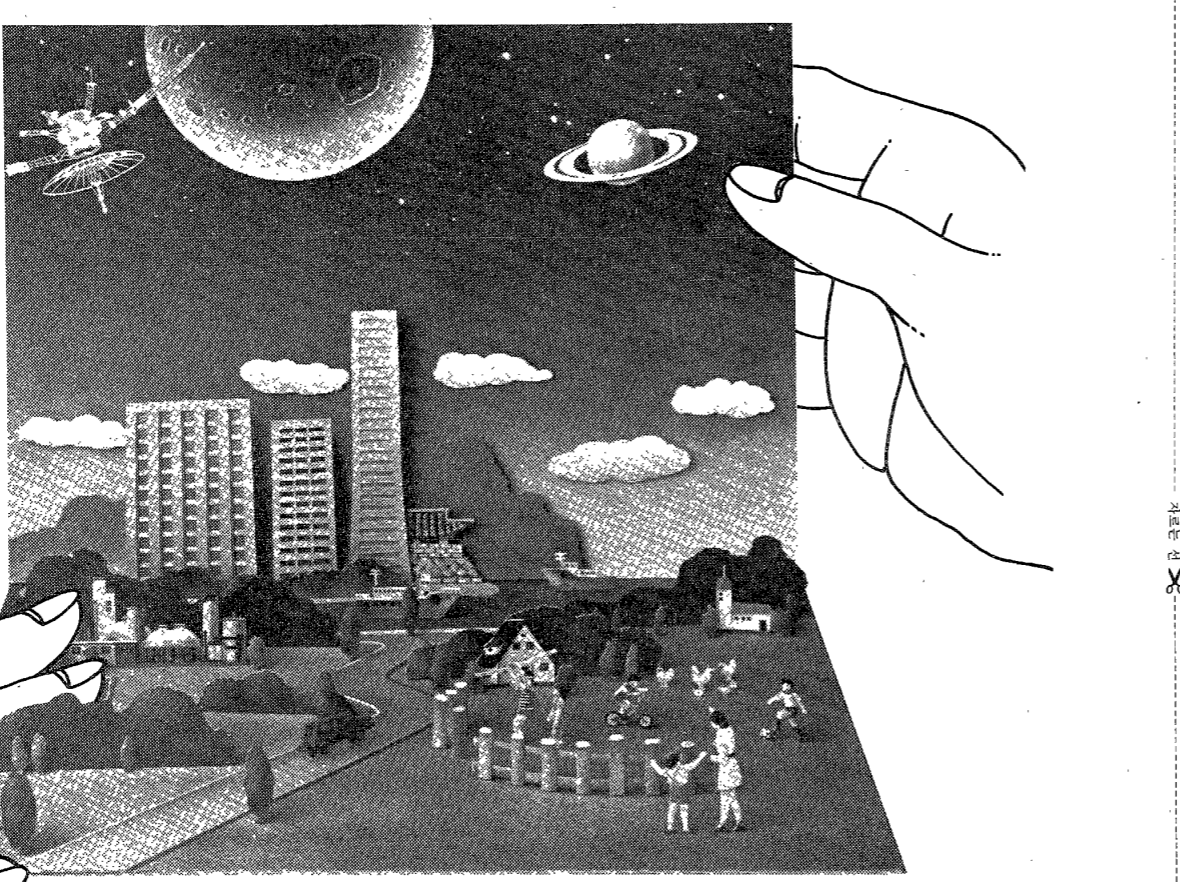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사업방식을 가져야 한다.

독서의 계절 이가을에 소개합니다

- 어느 쓸모없는 인간의 삶
막심 고리키 지음
1905년 1월 9일 '피의 일요일' 천여명의 시위대가 짜르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이것은 1905년 혁명-1917년 혁명의 중연-의 시작이었다. 고리키는 이 붐기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는 1907년 '어느 쓸모없는 인간의 삶'을 완성했다. 주인공 예프세이크림프는 운수하고 고지식한데, 짜르를 지명하기 위한 군의 필경사로 쉽게 끌려 들어간다.
(이론과 실천사-3천8백원)
-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V.크리피빈 지음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이 대중들에게 알기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적은 분량의 단행본으로 요약했다.
(광주사-3천원)
- 철학ABC
A. 라티토프 지음
페레스트로이카가 초래한 사상적 혼란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안정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인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페레스트로이카의 철학 기초를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체와 내용이 평이하며 철학상의 중요한 쟁점들을 상이한 입장간의 논쟁의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철학초보자들에게 훌륭한 입문서이다.
(새길사-3천3백원)
- 한국사회의 비판적인 시-80년대 한국사회의 분석
한국사학회 지음
사회학적 인식의 확대, 한국 자본주의와 사회구조, 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 등에 대한 논문과 이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남남사-8천5백원)
- 한국전쟁 연구-한국 현대사의 이해 I
최장집의 지음
현대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과 근원이 오직 한국전쟁으로 부터만 유래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민족사의 전개에 전쟁이 남긴 심대한 영향과 깊은 상처의 의미까지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복원과 정당한 평가는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태양사-5천원)
- 실천문학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당파적 현실주의의 이해를 위해
-남한 리얼리즘론의 전개과정
-북한학계 리얼리즘 논쟁의 검토
-과시주의 강화와 민중생활
(실천문학사-4천5백원)
- 사상문예운동-
제5호 1990년 가을
해방45년 한국사회 지배집단을 파헤친다.
'내국제' 어떤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중국사회주의 개혁의 진로
(풀빛사-4천8백원)
- 동향과 전망
-1990.가을
한국사회연구소 지음
한반도 통일 이루어질 것인가.
사회주의, 그 이론과 현실(사회주의의 사회, 정치와 국가)
독립적 자본관계와 기업지배 구조의 변형
(백산서당-4천원)
- 페레스트로이카 정론-보수와 혁신의 도전을 넘어
「코뮤니스트」지 편집부의 엮음
그동안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현실적 경험을 반영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익숙한 정치, 경제분야의 쟁점들 뿐 아니라, 사회생활, 지식생활, 역사와 문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의 페레스트로이카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새날-5천원)
- 역사비평
역사문제 연구소 지음
남북한 연구방법론 비판
한국 자본주의의 원단계
-구원기 변화와 90년대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
-남민권
최남선을 비판한다.
중국전쟁에서 싸운 조선의용군의 항일전쟁
(역사비평사-4천8백원)
- 중국 봉건사회의 정치사상
-조덕봉 지음
송·원·명·청으로 '분별되는 중국봉건사회의 정치적 흐름을 각과 풍류사상, 인본사상 및 반전제사상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각 시대의 특징적인 맥락을 짚어 나가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민본사상이라든가 반전제사상은 정말 혁명기에 영향을 미친 근대 혁명적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각 시기마다 나타난 정치적 특징들을 단순한 '시대 이해'가 아닌 '변증법적 논리' 속에서 발견해 온 사상체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동남-3천원)
-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나라 학문연구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진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학술단체협의회의 연합 심포지엄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엮었다.
(한울-8천5백원)

SAM YANG GROUP

함께 미래를 펼쳐 나갑니다



기업이미지설문조사

응답자 성명 () (남, 여) 대학교(원) 과 년제학

주 소 (우: -) Tel. -

※ 본 설문은 당사의 제품 및 홍보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성의있는 참여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적임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① 경제적 안정 ② 사회적 체면 ③ 자아실현 ④ 사회에 대한 봉사 ⑤ 대인교류
2.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하는 바는?
① 쾌락 ② 신분적 지위 ③ 권리남용 ④ 사회적 기여 ⑤ 인간관계유지 ⑥ 쾌락
3. 개인주의에 대한 견해는?
① 찬성한다 ② 합리적 사고이다 ③ 긍정적이지만 불쾌하다 ④ 시기적이나 우리도 배워야 한다 ⑤ 지양하는 편이 좋다
4. 졸업후 희망직종은?
① 일반기업체 ② 국영기업체 ③ 외국기업체 ④ 금융계 ⑤ 공무원 ⑥ 연구기관 ⑦ 언론계 ⑧ 교육계 ⑨ 자유업 ⑩ 전학 ⑪ 결혼
5. 회사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① 성장성 ② 안정성 ③ 급여수준 ④ 회사규모 ⑤ 최고경영자의 면모 ⑥ 선배-연고 ⑦ 승진속도 ⑧ 사풍 ⑨ 업종 ⑩ 회사의 사회공헌도
6. 일반적으로 기업체를 잘 알게되는 경로 두가지를 선택하시오
① 기업광고 ② 기사 ③ 세풍 ④ 선배-친지 ⑤ 기업설명회 ⑥ 산업시찰 ⑦ 산학제도 ⑧ 사육위치
7. 삼양사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나쁘다 ⑤ 아주 나쁜 편이다
8. 삼양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그 이유는?
① 회사의 진실성 ② 대외적 공신력 ③ 노사화합 ④ 지역사회발전의 기여 ⑤ 지속적인 성장 ⑥ 인화적 회사 분위기 ⑦ 주주사회의 성장
9. 우리나라 기업의 부활전망에 대한 견해는?
① 시기성조다 ② 실망이 없을 것이다 ③ 밝아 보겠다 ④ 효과가 클 것이다 ⑤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⑥ 절대 진흥해서는 안된다

※ 응답해 주신대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500명을 추첨하여 고급 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낼곳: 서울 중구로 언저동 263번지 (주) 삼양사 총무부 인사과 설문조사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0-470)
■기 한: 1990년 11월 20일



● 주식회사 삼양사(化, 雪, 糖, 飼, 料, 水, 産, 精, 密, 化, 学)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주식회사 ● 삼남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양영회 ● 수당장학회

사회보도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범죄와의 전쟁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 10월13일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표창장을 통하여 조직폭력배와 강박범, 마약조직, 인신매매범 등의 범죄와 폭력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이를 추진하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선언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아야한다. 첫째는 현정권이 숙청(?)전쟁을 선포한 '범죄'와 국민들과는 무관한가, 즉 우리 사회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이 전쟁선포가 현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범죄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사건이 매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고, '인신매매범', '기정파괴범'이라는 극도의 반인간적 범죄가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러한 범죄현실의 전쟁



◀지난 19일, 17일에 이은 두번째 전경과의 교내싸움(중문)이 벌어지고 있다.

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신20세기파' 두목의 사무실에서 박철언 민자당위원과 김인수 전 부산시경국장의 감시대가 발견되었다.

이렇듯 현제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층의 범죄는 '은정주의'적으로 대우받고 있다. 5공비리관계자인 이창식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부동산투기꾼 특별위원장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독점자본들의 탈세, 가격압박, 주식시장 '몰타기'

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지도하고 있다. 19일에는 대학가 서점가 출판사에 대하여 일제히 압수, 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게다가 범죄와의 전쟁을 전지전철로 하려는 듯 25일 밤부터는 M16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방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는 지난번부가 경찰관무장행위를 개정하여 기존의 임의동행거부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각계의견



김태준 (문과대교수·고전산문)

머리때 없앤다고 머리칼 자르는 격

옛날 같으면 나라의 예악을 존중하고, 음악의 바탕인 오음(五音)의 첫소리인 궁음(宮音)은 군주에 비견된다. 궁주의 음성으로 이 예악의 기본을 삼았다고도 한다. 따라서 통치자의 말소리가 부드러우면 나라의 예악이 바로 잡힌 증거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치자의 말이 부드러워지 못하여 나라의 예절과 국민의 태만한 마음이 상자를 받지 않을까 염려됨에는 옛이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다. 그리고 이(전쟁)이란 어감이 주는 충격 때문에 나라안인 지기 불안에 휩싸인 느낌이다. 그것은 반드시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이 주는 아

팜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학원에도 적잖게 미쳤는데, 게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동아에도 두번이나 경찰이 최루탄을 수없이 쏘아대며 쳐들어왔다. 우리의 수많은 강의는 중단되고 학생과 선생과 모든 대학인이 하루를 울어야 했다. 이 경찰들은 대학의 무엇과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 강의를 방해하고, 대학인을 울리고 또 기를 부쳐도 좋은지 대담이 시련같은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의 눈물이 다만 최루탄의 뒷안은 아니라면 생각을 되짚었다. 혹은 내가 낸 세금이 이(전쟁)을 위해서 최루탄으로 나에게 돌아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동아내에서는 지난 17, 19일 두차례에 걸쳐 교내에 난입한 전경들과 싸우는 사태가 발생,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본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아울러 두차례에 걸쳐 교내싸움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이대범 (문과대·철학과)

폭력과 범죄 낳은 진짜 범죄자는?

'범죄와의 전쟁' 실패가 가슴박한 발언이었다. 나는 그 말이 요즘 우리를 경악시키는 인신매매, 사위가 장모를 살해하는 일, 강간등 강력범죄를 피지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곧 나의 조그마한 믿음조차도 깨져버렸다. 그들의 범죄와의 전쟁대상은 우리를 불만에 떨게하는 강력범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예속에 자주를, 현 정권의 독재에 민주의 합성을, 갈라진 내 조국에 하나됨을 부르짖는 애국민중세력에 게 더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지난 17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서 경찰과배달원이 대규모의 병력

을 몰고 동아내에 난입하였다. 동아뿐만 아니라 연세, 홍익등 여러학원과 노동운동단체에도 탄압이 가중되고있는 등 '범죄와의 전쟁'의 전상이 드러나고있다.

청년학도와 노동자, 농민의 민주화운동(인간단체 참가운동)을 전쟁대상으로 보는 현 정권에게 나는 우리사회의 폭력과 범죄를 낳은 근본인이 무엇인가, 전쟁 범죄자가 누구인가 묻고싶지 않다. 답은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가지 숙제해야할 것이있다. 현정권은 단결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청년학도인 우리는 학생회로 자신

의 이해와 요구를 결집해 힘을 모으고, 노동자, 농민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힘을 모아 현정권에 대항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출발하는 힘이 가장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의 전쟁선포직후, 학원의 교관까지도 유린하고 동아에서 자행되는 그들의 무법성을 보면서 우리들은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공명된 우리들의 분노와 이해를 모아 학생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나아가 진정한 학원자주를 이룰수 하나됨을 부르짖는 애국민중세력에 게 더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지난 17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서 경찰과배달원이 대규모의 병력

범죄척결 빌미로 민주세력 탄압의도 예년없던 교내진입등에서 본질 드러나

한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범죄의 원인은 단지 범죄인 개인의 기질, '선천적'범죄성 등의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범죄의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에 그 자체이다. 예측적 자본주의발달은 금전만능주의, 물질숭배를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었고, 이 속에서 탐욕이라는 노동은 항상 친한 것으로 경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 항주의는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 사상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드리 자체가 현재 범죄현실상의 근본원인을 우리는 먼저 적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 체제는 현정권이라는 공권력을 통하여 자신은 이와 무관한 고결한 존재인양 행세하면서 범죄를 다스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자, 보시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상의 비밀침해를 저질렀고, 민간인사찰 1 공금을 횡령하였다. 부산시역 4

권을 삭제하고 경찰관의 직권남용 처벌조치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한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총기사용 확대조치는 무고한 인명살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연세대에서는 북한영화상영을 막기 위하여 교내에 진입한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하여 권원수씨가 실명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현정권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정권 자신이 부도덕한 범죄자로 방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진정 자기의 위에서는 그 근본원인인 사회전체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권을 삭제하고 경찰관의 직권남용 처벌조치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한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총기사용 확대조치는 무고한 인명살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연세대에서는 북한영화상영을 막기 위하여 교내에 진입한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하여 권원수씨가 실명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현정권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정권 자신이 부도덕한 범죄자로 방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진정 자기의 위에서는 그 근본원인인 사회전체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조국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동학로

"학원내 폭력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일이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법조치는 학원내에 대한 폭력외에도 학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11일 총대의원회사무실 피습사건과 관련, 총대의원회에서는 외장 김경민(경영4)군과 부외장 김창호(수교3)군의 명의로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검찰청에 안홍오(법4)군과 권혁대(판정3)군을 비롯한 관련자 30여명을 고소했다.

이는 총대의원회가 지난 17일과 23일 개최한 대의원 비상총회에서 총대의원회사무실 피습사태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합의한 40여명의 대의원중 많은 수의

폭력해결 방도



대해 일부 학생들은 '학내에 학생들사이의 일을 학생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의 손으로 직접 공권력개입을 요구한 어찌 구나없는 일'이라는 소리와 '학내에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고소까지 한

것은 너무나 일'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측은 고소를 한 당일인 24일 오후에 崔圭赫 생지장과 가진 면담에서도 불확생지장의 고소취하요구를 총대의원회측이 완강히 거부했을 뿐 아니라 김의장은 "자치기구에 대한 폭력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법조치가 여러가지 우려의 소리를 듣지만 이후의 학생행동을 생각할 때에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 고소취하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선거를 앞두고 각중선거에 대처하는 집단간의 이권다툼으로 번질 위험도 크다'는 익명으로 나눈은 대자보의 지적처럼 배주대와의 폭력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되는 차선책이라고 생각된다. (이형숙 記者)



유영순 (사법대·국교과)

대응할수 있는 우리 무기는 '단결'

누구에게나 바쁘게 일주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우연히 지나가는 순찰차안에는 "검문검색의 생활화"라는 표어가 태연히 붙어 있었다. 보지마자 우리는 미구 웃어댔다. 미구 웃어댄다는 표어가 나올 수 있을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군. 황당해서 웃었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아주 자연스럽게 학내를 침탈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7일, 이때는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쉽게 집회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소규모라도 반민자당 결의대회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집회가 잡혔었다.

그 상황에서 교문을 나가기도 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실제 진행됨을 보였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순간적인 반항으로 나타났다. 가진 단결, 조직력을 빼면 무엇이 있었는가. 배지된 각성으로 각 단위에서는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19일 집회를 준비했다. 준비한 만큼 학원을 지키는 결의는 색다른 범죄자적인 정권에게 또 하나의 전쟁 선포를 했다고 생각한다.

민생치안이라는 미명하에,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데 어찌 신성한 학원에 군

화발과 최루탄 난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에 순환차안에는 "검문검색의 생활화"라는 표어가 태연히 붙어 있었다. 보지마자 우리는 미구 웃어댔다. 미구 웃어댄다는 표어가 나올 수 있을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군. 황당해서 웃었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아무리 정당화해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은 곳곳에 진치고 가있는 전경들을 보고 안도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다. 포위진압 작전으로 총으로 아무리 위협을 해도, 포위 작전에 총이 결국 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총칼에도 굴하지 않는 민중을 모른다면 전쟁 선포를 하지도 않았을 때가 말이다.

30만 교사와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교육 전문월간지

서울시 미포구 망원동 386-16 삼미빌딩 201호 전화: 338-8273(편집) 338-8274-5(영업) FAX: 335-4522

우리교육

1990 II

심층취재 통권 제9호 값 4,000원

학교현장의 사각지대, '교육폭력' 사립학교 법정정원 확보 시급하다 입시학원에 놀아나는 대입 진로지도

한국 교육재정구조의 위기와 91년 교육예산안

기획연재

미군정기 최대의 교육운동, 국대안반대운동 분단조국의 자화상 장기구금 양심수 북한 동포들이 즐기는 민속놀이

교원상담 학교 안전사고와 교원의 책임

책속의 부록

이런 수업을 해 봅시다. 재미있는 '시와 노래테이프 만들기' 초등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교사글쓰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집 한국사회와 중고등학생운동

좌담 : 고교생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등학생,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중고생운동, 그 길고 긴 뿌리 80년대 고교생운동의 흐름과 성과

사회기획

어느 농업고등학교 해직교사의 현장 체험기

저 임금 생산 노동자 양성소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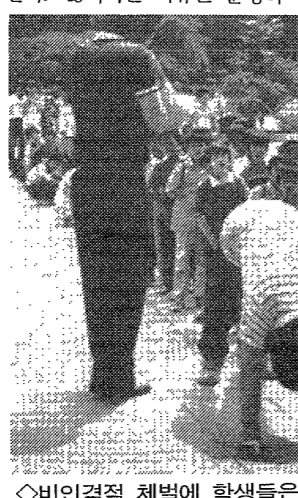
내가 이곳 〇〇농업고등학교에 부임한 것은 86년 3월 1일이었다. 그리고 전교조와 관련하여 학교를 떠났던 것이 89년 8월이나 89년 6개월간 재직했던 것이 된다. 이 학교에 있으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학생들 입장에서 동시에 교사들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밝히고 그와 관련한 비교육적 처사들을 사례 중심으로 고백한다. 미리 밝혀두는 것은 내가 학교를 떠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교육정책의 근본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학교현장은 '5공회귀'되었다는 것이다.

1. '노가다'라 불리는 실습교육

실습은 글자 그대로 실험실습을 통해서 이론학습으로 부족한 농·축·임·원예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그 기능을 익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실험실습과정은 거의 생략되거나 간과되고 학생들이 곧바로 생산현장과 동원된다는 것이다. 즉 산과의 예를 들면 학생들이 깎는 법을 배우고, 소관 리본, 엔지니어링 등기 등 관련 기능을 익혀야만 하는 수백 마리의 대규모 젖소농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실습교육을 통해 젖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는 생산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체제에서 학생들이 수만 마리 되고 학생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것이다.

목장이라 불리는 젖소농장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보겠다. 젖소농장은 매일 수차례 젖을 짜야하고 먹이를 줘야 하며 겨울사료를 비축하며 또 단계를 출산할지 모르는 어미젖소를 위해 24시간 학생들이 숙직을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담당하는 사람은 전담교사 1~2인 용인 몇 명. 그리고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연구생이라고 하는 이들 학생들은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관계없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간다. 당면적으로 목장으로 '동료'하며 학교로 오는 날에도 필요에 따라 1,2교시, 잘해야 4교시후 다시 목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실자리는 항상 비어있기 일췌이며 교과담임은 그 학생 얼굴을 처음 대할 때면 '처음보는 얼굴이 된다. 이들은 물론 학교에서 주는 수업료에도 못미치는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계산해보면 연구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받

지 못하는 수업, 그리고 그들이 매일 제공하는 노동의 양에 비해 이 장학금은 너무나 협소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안다. 이 연구생만 가지고는 목장의 일이 다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일들,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작업은 전교생이 동원된다. 수업을 전매한 채, 이때는 전 담임교사가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띠고 전원이 동원되고 목장전담교사는 총감독이 되어서 목동이를 들고 설쳐댄다. 수만 명이 넘는 목장에서 반별로 작업량이 정해지고 그 작업을 마칠 때까지 각반담임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그 무슨 '공사반 감독'의 위치로 전락한다. 아이들은 이 작업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하



〈비인격적 체벌에 학생들은 점점 순치가 되어가고 있다.〉

는 도대체 누구런가... 그렇다. 실습중심으로 학교생활 전반이 운영되고 그것을 위해 모두가 협조하고 있는데 실습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하는 전제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맞는데 이골이 났다. 이유가 어떻든 단순한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어 교사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다. 주먹, 발길질에, 비인격적 처벌에 점점 순치되고 눈동자는 흐려만 간다. 근데에서 가끔 있는 '머리박아야' 기분이 이곳 목장에서서는 젖소 똥무덤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루는 밤시가 넘었는데 담임반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아이는 목에서 종이가 튀어 나온 채로 뒤쪽의 모든 부위가 일률적으로 얼룩덜룩하게 붉은 줄

있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하층의 생활수준이 대부분이고 낮은 저능아와 복수아들도 다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인 문제 고교 입학에 떨어진 경우 재수한 경우 등 실로 진정한 교육적 배려와 조치가 요구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망라되어 입학하고 항상 입학성 모집일이 되면 학교 당국에서 각지역 중학교를 돌며 대부분이 거짓말인 '농업학교의 특별 동 유인수단을 동원하여 입학 학생을 모집하는 데 그 수는 미달이다. 입학한 학생들은 위의 유인수단을 알고 혹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3월 말 학기초를 시작한다.

생산 목표 위해 똥똥이질 예사 인식 전환과 재정 지원 병행 절실

다. 실습에 그치지 않고 작업 목표와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노동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체벌중심의 통제

89년 어느날 담임반 아이들이 목장담임교사로부터 단계를 합을 받았다. 한 아이의 엉덩이를 내리보니 온통 새까맣게 먹물이 들어있었다. 이유는 그날 목장 실습에서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전제를 교실도 아닌 후미진 건물 뒤에 얹어 버려 버려 버리고 똥똥이질 사정없이 때렸었다. 비교육적인 처사에 분노를 삭이며 나는 그 아이를 교장실로 데려가 교장 앞에서 맞은 중동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교장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는 것이다. "김선

이나 있었다. 학생과 교사에게 별 잘못도 없었는데 '체벌'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이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고,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3년간 같지 않은 아이들을 졸업장이라는 유일한 유인수단으로 묶어두는 수순으로 불과하며, 국가는 농업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열악한 교육 재정을 배우고 계속적인 자본 이태올리기 체생산 구조속에 농업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3.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시험을 치루지 않고 형식적인 전환만 거친 입학할 수

인문계 학교에서 가장 늦게까지 붙들고 있는 수확시험 시간,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해치우고 나가는 것은, 이들이 수확시험이 그만큼 어려워서 아니라 이에 포기하고 객관식 답을 문제는 보지 않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수준이나 요구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지 않고 인문계고교의 인문교과 과정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교사와 학생간의 괴리현상이다. 그래서 교실에서의 수업시간은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똥똥'현상이 된다. 자신의 삶으로 채우지 못하

는 이와같은 교육과정, 통제되고 강제적인 실습, 폭력화된 생활지도 등은 학생들이 하여금 '학교와 존재'를 잊게 하기에 충분하다.

자퇴한 학생과 실습당면일로 자리를 비운 교실은 적을 경우 10여명에서 20,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있고 빈자리를 채우며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도시학교의 과밀현상과 다를 바 없는 교사의 대조적인 것이 된다. 빈자리가 많은 것은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을 경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사들에게 수업의 욕을 상실하게 된다.

학생들의 문제해결의 유일한 돌파구는 자퇴로 귀결되며 자퇴하기 전의 충분한 지도과정은 거의 생략된다. 이는 또한 학생들에게 언제든 쉽게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실제로 자퇴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재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시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〇〇농업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것의 일부로 실습교육의 실태와 체벌문제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자퇴현상 등을 적어보았다.

인문계학교중심의 교육정책과 사회적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 있는 실업계교육은 실업계학생들이 사회적·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실업교육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오늘날 실업교육은 그 본래의 목적은 무시되고 오히려 저임금생산노동자를 양성해내는 자본과 국가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폭력적인 강제와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동시에 현재의 학생노동력을 극대화하므로써 빈약한 국가교육재정을 보충하고 기존의 학교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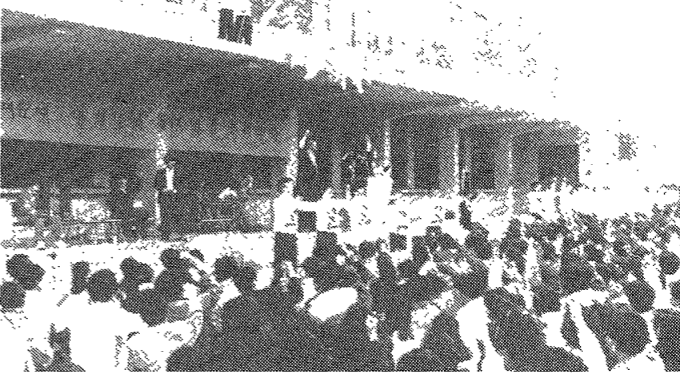
진교조가 결성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업계 교육의 문제는 별로 거론되지 못했다.

다른 실업계교육의 문제들도 우리 한국교육의 모순현상과 함께 그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실업교육이 문교정책에서 갖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본다. 동시에 학교현장이 교사의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민주화가 이룩되고 제반 교육정책이 이를 위해 봉사할 때 실업교육, 나아가 우리교육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김 병 태 <전교조 제원·제천지회장>

현정권은 송감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기획점검: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무관심과 악선전 답습하러나

정책선거,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내언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분위기가 사시히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그 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성원들의 무관심과 임무보장자들의 사소한 홍보공간시비등 기성 정치권 선거와 별다르지 않은 모습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뽕이 놓으면 뽕나무가, 선거 끝나면 지내들 끼리 싸고 궁구주라"라는 말이, 도사관에 가서 공부하러 오겠다"라며 조용석(경향·3)군은 학생회 선거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토로했다. 비단 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학생회 성원들에게 있어 선거는 자신의 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안성희(국문·4)양은 "아무리 요만한 유세를 하고 홍보물을 부착하면 뽕나무가, 일상적인 학생회 운영에 있어 학생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성원들의 이해와 요

대중적이며 공개적인 정책선거돼야 무관심,관성화된 학생회 풍토서 기인

구를 들고 자신의 문제처럼 성원들의 문제거리(복지문제, 학원지주화, 사회민주화)를 끌어내리고 고민하는 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은 일면 불가피하다"라며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선거풍토가 결코 일상적인 학생회 운영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학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성원들이 1년 동안의 학생회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임무보장자와 함께 마련 하는데 있다. 결국 학생회장을 뽑는다는 것도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경우 이러한 순서를 겪지 않은 채 몇 단계 뛰어넘은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평가가 학생회장을 비롯한 몇몇 운영위원들이 지휘적으로 참여하는 아전인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설문조사등을 통한 대중적인 평가와 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단과대는 진부하다. 뿐만 아니라, 임무보장자들의 정책도 학생회 골간 체계를 이용해 이루어 지기 보다는 몇몇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학생회운영의 풍토가 이렇다 보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도 누가 적체적소에 그럴듯한 홍보물을 많이 부착하느냐 화려한 유세를 하느냐에 좌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홍보물의 양보다는 결의, 화려한 유세보다는 공청회가 증시되는 선거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때다. 이러한 것보다 임무보장자들

SAM YANG GROUP

삼양은 내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일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인생을 이야기하고
24시간 잠에 취할 수 있는 젊은이”**

삼양

- 주식회사 삼양사 (化) 廣 德 興 精 製 化 學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양포도주주식회사
- 삼양식품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삼양제분주식회사
- 삼양화학연구소
- 삼양화학연구소
- 삼양화학연구소
- 삼양화학연구소

특집기획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심층분석 '반미구국전선'사건의 진상을 조망한다

수사과정서 조직명 세번씩이나 바뀌어

지난 여름, 우리들앞에는 이른바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던져졌다.

14명이 연행돼 10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으로 사건의 발단과 과정이 조망되지 못한채 학생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있다. 당시 학생들이 놀랐던것은 사건관련자 대부분이 학생회간부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피의자들의 진술과 재판과정 공소장에 비추어 봤을때 이번 소위 '반미구국전선' 사건은 조작된 것임이 확실시 되고있다.

이규민(국문4)군을 비롯한 8명은 지난 7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홍제동 대공본실로 연행되어 소위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조직에 케어 맞춰진후 10여일간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른바 '반미구국전선'은 국가보안법 위반 제7조 1, 3, 5항, 제14조를 적용,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탐독혐의를 받고있다.

'반미구국전선'사건은 검찰의 수사사태에 의한 치안본부 대공 본실의 사찰과 이적 단체 조작에서 연유되었다. 윤남진(경명4)군에 의하면 학원사찰이 세밀정도에 걸쳐 학생회내, 근처 식당, 술집, 친구집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졌다고한다.

이러한 가운데 '반미구국전선'을 탄생시키게 된 일이 터졌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수배대상이던 P군이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프락치활동강요에 못이겨 허위진술서에 이미 작성된 조직체도를 인정했다. 이과정에서 만들어진 '구국전선'이었다. 또 P군의 3일간의 강압적 수사에서 나온 강령과 규약은 '인민노련'수사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상의 사실은 P군이 애인에게 보낸 편지내용에 서술된 것이다.

치안본부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반미구국전선'관련자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와 협박을 늦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윤남진군의 경우 학원사찰경과가 이미 확보한 50명의 '인질'을 놓고 "몇명이나 구속시켜야 되겠냐"고 협박했고 다음날 10명의 학생들이 구속되게됐다.

불구속으로 풀려난 강정현(국문4)양의 경우는 남지수사관들이 물은 남녀관계, 생리여부등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몇몇동안 잠을 깨우지 않고 심문실에서 밤 새는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의 치졸한 유도신문과 지극지못한 치안본부 의전서까 공소장을 채워갔다"고 한다.

이와같은 과정속에서 16월 50쪽 분량의 소위 '반미구국전선'공소장이 완성됐다.

영문과 김인영양의 공소장에는 '반합법대중활동가 조직인 민주동맹'의 문과대 조직체로 활동하던

.....'이라고 '반미구국전선'을 '민주동맹'로 다시표현하고 있다.

또 공소장 4쪽에는 '동년 12월중순 당시 동교내에 조직되어 있던 소위 활동가조직에 가입권을 받고 동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읽어 본바'로 서술돼 있는데, '반미구국전선'관련자들은 강령과 규약을 전면부인하며 P군이 연행시 '인민노련'의 강령·규약을 참조해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규약에 나온 '본모임을 '반합법 대중활동가 조직'으로 '민주동맹'이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반미구국전선'관련자

이념조직인 반합법 대중활동가조직(일명 활가조직, 민주동우회)가입을 위한...'이라고 서술, 김인영양의 공소장에서의 민주동우회와 또다른 '지하이념조직'의 개념이 첨가되어 있다.

공소장에서 이적표현물로 지적된 기록된 도서는 '철학에세이', '경제사학습',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발전', '변증법적 유물론', '청년학생운동'등이고 '현재 자주적인 민중운동은 노정권타도를 위하여 광범한 민주대연합을 확립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조직도 많은 강령과 규약을 들어 조직으로 묶어 이적단체로 모는것은 허무맹랑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술책이다. 검찰의 논리라면 서총련·전대협도 이적단체로 규정할수 있을것이다.

또 이적표현물로 취급된 '경제사학습', '새벽'등의 서적은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간부들 떠나 사회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을수 있는 사회과학 교양도서임에도 이를 조직사건에 결부시키는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반통일성, 반민주성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적단체는 또다시 소위 "제2의 반미구국전선"을 조작할 수 있다.

모든 공소장의 각항과 모두 부분이 끝날때 마다 써있는 "반국가 단체인....."부분을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소위 '반미구국전선'관련자들은 "이부분이 북한에 대한 냉전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고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이다, 통일촉구다 해서 통일의 열기가 전국민에게 확산되는속에서 현정권의 북한에 대한 시각은 여전하다. 북한에 대한 연구가 학계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깊은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배우면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이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수 없다.

실천하는 학생회간부가 되고자 했던것이 소위 '반미구국전선'관련자들이다.

치안본부에 의해 불법연행당한 강정현양 수기

여름이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자랑하던 7월9일.

한강이 보고 싶었던 90후배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야단스럽게 장난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행되어 하얀 밀실로 갇히게 되었다.

남자동기는 머리에 가스총이 겨누어지고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양팔마저 벗기고 허리를 빼앗긴 상태로 "여학생들은 보내시오, 그러면 순수하게 따라가겠다"고 소리쳤지만 그들

뒤 각자 방 하나를 배치받았다. 고정된 침대, 고정된 책상, 고정된 의자, 고정된 인간들. '해원실업'이라는 명함을 단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입에서 "상무님! 저놈이 끝까지 발악하는 통에 지하실 역원까지 합세했습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내게 처음 던져진 질문은 "이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이곳이 11명이 죽어간 치안본부다."라는 말에 이어

운동권 남학생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육체적 고통을 하고 여자를 이용한다."는 정신적 고문도 진행되었고 "네가 잘 말해야 아버지도 다치지 않는다. 결국 너는 아버지 목에 총을 들이밀었다."라는 말로써 내가 지켜야 했던 삶의 건강성과 진실들은 파괴된 채 오로지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존의 본능만을 가지게 했다.

폭력과 구타는 더이상 그들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 스

가스총 머리에 겨누는 흥제동 분실로 연행 "남자랑 자본적 있냐"는등 정신적 고문 자행

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자기용에 타자 우리 자신의 얼굴은 어느덧 다리 사이로 치박히게 되고 차창 사이로 스치는 내은의 흐름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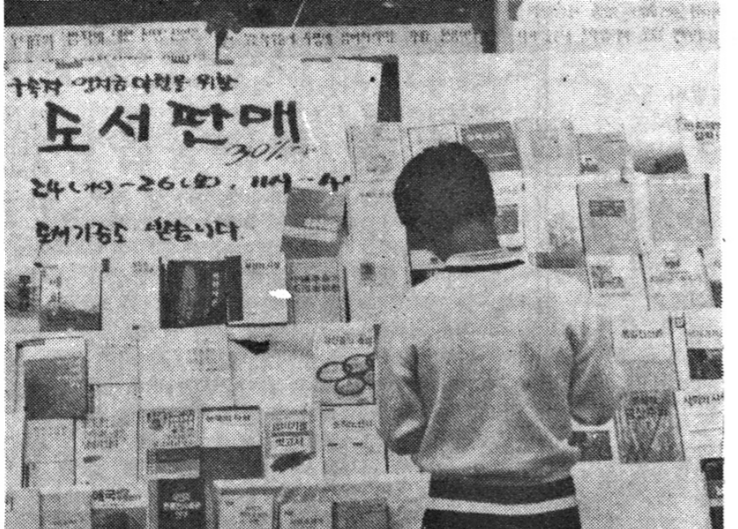
좁은 계단을 몇번인가 올라간

"네가 가입한 조직명과 직책을 말해라. 순수히 말하면 다치지 않고 끄고 나갈 수 있다."며 승리의 웃음을 보였다.

조사과정 중에 여적이기 때문인지 육체적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남자랑 자본적이 있느냐

스로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밀알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무기 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 나가야 한다

(문과대 국문4)



◇영치금 마련을 위한 도서판매가 다함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반미구국전선'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그들을 지켜 낼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진실 밝힐터"

— 구치소에서 만난 '반미 구국전선'관련자

인터뷰

김봉준·윤남진·이규민 군

가족을 동반해야 부분적인 변회가 허용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반미구국전선'사건관련, 이규민(국문4), 김봉준(야·경제4), 윤남진(경명4)군을 만나 사건의 경위와 재판에 임하는 결의등을 들어본다.

두점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10분의 짧은 면회시간과 교도관의 대화내용기록으로 요점만을 간추려 적는다.

▲'반미구국전선'사건이 지나는 의미라면,

=(김봉준)6공들이 아직까지 한학교에서 이같은 조직사건은 없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번은 노정권의 침탈로 서총련, 전대협을 위협하려하는 의미를 갖는다.

(윤남진)-6:29이후 각계각층의 정치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막자는 적극적 의미를 띠며 앞으로 조직사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규민)-미행과 프락치강요의 인권유린에 의한 조작사건이다. 92, 93년경기에 정권의 위기를 '진정한 현정부의 조기제어'다.

▲현재 구치소내에서의 결의 정도는,

=(김봉준)-재판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규명하는것을 최우선의 투쟁으로 생각한다.

(윤남진)-처음엔 꽤 고생했는데 구치소 사건이후 결의를 높이고 있다.

(이규민)-과거의 생활을 돌아보며 치안본부에서 나약했던 모습을 구치소에서 튼튼하게 해 동지들에게 보답하겠다.

▲'반미구국전선'의 조직된 증거라면,

=(김봉준)-어떤 강령·규약도 없었으며 '반미구국전선'이란 이름은 처음들어본다.

(윤남진)-치안본부에서 이미 조직체도를 그려놓고 신원이

일주일정도 않아 기록을 못차리다 8:27구치소 사건으로 힘을 내 재판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규민)-국보법의 허위성을 알리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해 나가고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항거를 하겠다.

▲동약에 있는 일반학우들에게 전할말은,

=(김봉준)90년의 어려운 정세에서 청년학우들은 학생회로

관련자들, "학생회 강화위한 모임이었으며 강령·규를 없었다" 주장 수사과정서 각종 비인간적 처사 당해

들은 모임은 인정하나 학생회강화와 서총련·전대협을 지지하는 학생간부들이 자연스러운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 내용의 대부분인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에서 '주체사상'의 지적부분에 대해서 '주체사상 학습부분은 인정하되 학문사상의 자유와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전사화를 관통하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백종민(국문4), 김인영(영문4)의 공소장에서 모두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탐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미구국전선'의 모임에 대해 백종민(국문4)군의 공소장에는 '지하

조사과정에서 '반미구국전선'관련자들은 이리저리러한 책자들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일부는 인정했다.

그러나 심문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위해 확대, 조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맹목적 찬양단체', '김일성 대하 교과서 어느대목'으로 매도됐다고한다.

지난 17일부터 서초동 대법정에 서는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1차심리 공판이 열려 오늘(31일)까지 계속 되는데 구치소 수감자들은 재판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밝히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있다.

소위 '반미구국전선'이란 모임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학원의 자주화를 위해 학생회 간부중심의 모임으로 전대협의 노선을 지지하

이 모임에서는 활동했던 학생회에서의 대중사업(과·단과대·총학생회의 공식적 활동)일 뿐이며 이는 동대의 독자적인 대중사업, 즉 축제·학술제·체전등의 행사와 서총련·전대협에서 제시하는 사업과 사업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수행하고 학문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이상 언제나 조직사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소위 '반미구국전선'사건관련자들의 생각과 모임전반 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양심껏 말할수 있는 열려진 공간인 재판에서 소위 '반미구국전선'의 진실이 그들의 입에서 밝혀질 것이다.

(남 철우記者)

東西食品

「맥스웰캔」만이 어울리는 시간이 있다.

젊은 가슴이 먼저 감증을 느낄때 — 캔을 열면 가슴을 적셔오는 맥스웰의 향기 맥스웰 캔커피만의 청량감으로 맥스웰 캔커피만의 또다른 느낌으로 기분까지 새로워지고 싶다. 정통커피음료 맥스웰캔커피 — 커피의 명가 동서식품이 만듭니다.

커피를 느낄때 언제나 맥스웰 캔커피

특집기회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있지만 사실 학생운동사에서 볼 때는 그냥 사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건의 성격상 학생 대중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전태일 분신'은 산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동자의 소외와 착취라는 계급적 문제를 사회의

선배들로 부터 듣는 본교 학생운동의 발자취

의연히 걸어왔던 자주·민주·통일의 길

학생운동은 수많은 세월속에서 올바른 사회변화에 복무하고자 노력했다. 이같은 오는 11월3일 학생의날을 맞아 본교의 학생운동을 동문선배들로 부터 들어봄으로써 오늘날 학생운동을 재조명해 보고자 쓰여졌다. <편집자>

유심희 ~4·19

개교84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동국대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앞장서 있다.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에서 90년

또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된 동국은 불교인의 비밀결사당인 만(만)당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도 했다. 일제시대 동국의 학생운동은 지금처럼 명확한 사상적 체제나 조직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대학생으

4·19때 경무대로 향한 군중 선봉에서

학원자주화투쟁으로 이어지는 운동의 맥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을 오늘에 후배들이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지배가 시작되던 1906년 '명진학교'로 문을 연 동국은 '중앙학원'으로 이어지고 '유심희'라는 당시 만해 한용운선사의 지도하에 3·1운동의 불교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동국학생운동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1921년에는 전문학교 승격운동이 일어나면서 동맹휴학이 전개되는데 당시 동아일보등 일간지에서 이를 크게 다룬 기록이 남아있다.

로, 민족불교의 애국정신으로 뭉쳐져 이때의 보성전문이나 연희전문 등의 모범이 됐다. 해방을 맞으면서 '친탁', '반탁'의 좌우익 대립이 거세지면서 학생운동은 관제대로나 릴기대회에 동원되는 학생운동의 암흑기를 60년 4·19혁명전까지 맞게된다. 한편 이승만독재정권에 의한 3·15부정선거 마산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전국을 휩쓸면서 4·19혁명을 발발하게된다. 1960년 4월19일의 상황을 기록한 동대신문(154호)을 보면 "4월 19일 오전10시 아무런 약속도 없었던 3천여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40여명중 김반우군은 경무대에서 칼빈총의 실탄을 목에 맞고 길이 20센티, 깊이3센티 가량을 다쳐 척추신경이 끊어져 팔다리를 마름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도 했다. 4·19혁명의 환희도 잠깐,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한번의 암흑기를 맞는다. 지금의 우리는 4·19에 대한 계조명작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소위 '4·19세대의 변질'을 말한다. 동국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쏟아지는 총탄속에서 '東國大學'라는 플래카드를 앞장서며 경무대로 향한 1960년의 동국은 살아있었다. <정>

유신시대



박상국 (73학번)

관계없이 동대의 학생운동가(당시는 의식있는 젊은이로 통함)들로서는 암울한 시기였다. 독재자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무수히 남발되어 조성된 으스스한 분위기는 학교앞 슬럼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했으며, 별 수준도 아닌 독서경 정도도 모처럼 모셔가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동대를 메이저급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밑거름이 됐다. 7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타디 그룹, 각종강연회등을

모르고 살다가, 그때 느꼈던 살인적인 농사일에 접해본 순간 "사라 어떻게 이런일을 하고 살수가 있는가, 짐승도 아닌데..."라고 불명히 생각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맞았는 보리밭을 먹고 얼얼 하얗고 곱상한 손가락을 향해서 들어, 그들이 타도 되면 농민이 정말 잘살 수 있는가

스터디그룹·각종 강연회등으로 역량키워

들어보려면 70년대 교정은 낭만이 깃들여 있었다. 당시, 삼천포 상회하는 학생수로 남산중턱에 조용히 자리잡은 모교는 후문앞에 좁은 출입이 있는 화강암 보도블럭 위로 양산을 바쳐서 여학생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늦은 봄날 학생회관 앞쪽으로 아카시아 숲이 우거져 향기가 진동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만해의 일이 스며있고 노회두 선배와 김중배 선배로 이어진 본교 학생운동의 흐름은 70년대 초반 여익구 선배의 구속(민청학련사건)으로 반독재투쟁의 장을 넓치게 되어 있었고, 그때 이준섭(동경·72제적), 조영희(경외·73제적)로 이어져 현대적(?) 학문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이영우(경외·75제적)를 거쳐 노일현(불교·77제적, 사망)때에 와서 70년대 전 시대를 꿰뚫는 반독재투쟁의 총괄인 10·26을 맞이한다.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당시에 인기있던 책은 '민족지성의 탐구(송진호)',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역사란 무엇인가(E.H. 카)', '대학의 이념(아스퍼스)', '후진국 경제론(조용범)' 등이 있었으며 봄 가을로 있는 데모에 1~2천명참가-당시로서는 거의 전교생이 있었음-으로 운동역량을 확인하였다. 필자도 그러한 책을 읽고 데모에도 앞줄에서 서는 편이었으나 학생운동가는 아니었다. 단지 일반학우들 수준의 정의감-독재정권에 대한- 정도였고 광범위한 인간관계 속에서 학생운동가들과의 교류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운동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사활동-요즘의 농활-을 농어촌 연구부원의 한사람으로써 충정도 두배산물로 갔다가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 서울태생으로 약간 부유한 성장기를 보낸 나는 노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구나고 생각하게 되었고 폭쟁이를 잡았고 휴먼지 부는 곳으로 관심을 쏟게됐다. 그리고 여영부영 운동주변에서 사심줄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뒤를 돌아본다. 능률한 학생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다우기 농-운에 관심있는 후배들이 있어 반갑고, 황토에 몸을 맡긴 운동가들을 볼때 오히려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지금 학생들은 너무 많이 많지않은가하는 생각도 든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일까? 또 입장차이를 떠나 쉽게 이야기한다. 마치 수많은 세월을 운동에 바친 것처럼, 폐기도 좋고 조직도 왕성한데 잠깐이 부족하지않나 싶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극복될 수 있고 그레아만 '열정의 시대'를 살았던 선배들을 능가하는 좋은 후배가 되지 않을까?

6·3사태~민청학련



여익구 (67학번)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정에서 19여년의 6·3사태와 74년의 '민청학련'사건까지의 10년간은 학생운동사에서 민족·민주적 과제를 육화시키는 초보적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 사건별로 열거하면 64년의 6·3사태, 68년 통혁당사건, 69년의 3선 개헌반대, 70년의 전태일분신사건, 71년의 대통령선거 지원

민족·민주적 과제를 육화시키는 초보적 단계

련반대데모, 72년의 유신반대데모, 74년의 민청학련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전 굴곡진 사건들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학생노동이 조직되었지만 전국적인 규모와 운동사에 특기할 영향을 준 것은 대학 위와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6·3사태는 5·16쿠데타이후 미국의 사주하에 벌어진 대일외교의 정상화와 함께 그 조건으로 굴욕적인 청구권 담합과 일본 자본에 한국전출을 합법화시키는 한일회담에 대한 전국적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이는 반일감정의 전초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운동내면에 잠재해 있던 공감대는 정치·경제의 대외중심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자주화의 문제와 직결된다. 역설적이게도 박정희정권은 이 한일회담의 성공(?)으로 정권의 몰락과 대를 획득하여 장기집권의 단초를 열게 된다. 69년의 3선개헌반대시위와 71년 대통령선거지원유신반대시위등은 민주화문제의 끊임없는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교련반대시위를 학교 생활의 병행화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학생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것으로서 규모의 면에 있어서도 전국적이고도 대규모적인 학원자주화 투쟁의 정점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혁당사건은 민족통일운동의 핵심을 관통하는 조직적 지하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 분신은 학생노동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는 학생운동에 계급적 과제와 해결 방법을 있어서 자기헌신(분신, 합복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민족·민주·계급적 과제의 집약적 해결을 시도한 것이 민청학련이었다. 이는 운동방법에 있어서도 반합법조적의 활용과 계급적 연대로 고 세롭고도 강고한 학생노동이 태동되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10월 유신이 초래한 엄혹한 사회환경의 산물이기도 한 것은 틀림없다. 이 민청학련의 유산이 결국 오늘날의 전태일을 탄생시키는 맹이적 단계였다고 할 수 있었다.

서울의 봄~84년



김형민 (80학번)

유신독재의 종말과 함께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서울의 봄은 광주시민의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사라진 공간에 남아있는 것은 계급군의 살기였다. 그러나 5월과 함께 시작된 겨울의 깊숙한 곳에는 또다른 봄을 예고하는 꿈틀거림이 있었다. 유신의 종말과 함께 다시 돌아온 복교생은 전두환 정권의 들어섬과 함께 사라졌다. 광주의 진실은 우리학교의 선배가 만든 "지고"등의 유인물을 통해 일부에만 전달될 뿐이었다. 긴 휴교기간을 끝내고 1학

술한 난관 끝에 총학생회 부활시켜

년 문무대 임소날인 10월24일 노일현(불교4)등의 시위는 우리학교 학생운동이 80년 봄을 거치면서 절이 성장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우리 학교의 운동 수준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은 단위의 스타디 그룹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이해와 민주변혁의 올바른 전망의 확보를 위해 학습과 작은 실천 등을 병행했다. 학습과 실천으로 다져진 치열한 실천의지는 81년과 82년 새로운 시위전술의 개발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투적이고 선진적인 투쟁의 형태를 제시했다. "...피로써 배양된 자유 피로써 되찾자"(81년 5.27시위 유인물)라는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독재 민주화 의지는 은행나무(81. 5.6시위, 82. 5.27시위), 도서관 배반(81. 5.27, 82. 3.30, 82. 5.27)등의 고공 전술과 칼과 쇠사

슬(81. 5.27, 82. 9.17, 82. 9.22)등의 장비를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당시 학생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주동자들은 수감된 상태에서도 훌륭한 옥중투쟁으로 모범이 되었다. 특히 82년 5.27시위는 무려 4시간 30분 동안 교내 곳곳을 투쟁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탄압 역시 치열했다. 81년 학협사건, 81년 불교사원의 사건, 82년 야학인연합회 사건 등 연합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우리학교 학생운동도 많은 타격을 입었다. 특히 83년 3월 예비검속으로 수십명이 강일식 복도, 동교길 등에서 연행되어 6명이 강제징집을 당했다. 그중에서 최은순(수교81)은 의문의 죽음에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탄압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82년에는 학군단 부부 앞의 경찰차가 상주하고 완전장항한

경이 2인씩 교내를 순찰하기도 했으며, 수백명의 사복경찰이 형식 불상과 분수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이것이 은행나무에 둘러쳐진 철조망과 도서관장벽에 세로만들어진 창살은 우리학교 학생의 전투적이고 선진적인 의지와 전두환 정권의 탄압의 정도를 극명하게 시사해 주었다. 83년말 소위 유화조치는 곧 박민부, 동민부의 투쟁으로 그 본질이 폭로 되었으며 오히려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화조치 공간에서 조직된 '민주회투쟁위원회'는 각대학과 연대 투쟁(서울 남부지역 담)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운동의 대중적 확대를 위해 기여했다. 84년 11월 연립집회 등에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었던 역량이기에 85년 총학생회의 구성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었다.

85~87년



양홍관 (81학번)

85년은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총학생회가 부활한 것 해였다. 전학련, 삼민투의 시절 80년 이후 성숙된 학생운동이 대중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폭넓은 동참에서부터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수천명의 대중집회 가운데 민중·민족·민주의 삼민주의가 제기되고,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생회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방이 본격화된 것

86년부터 학생운동의 대중화 이루어져

도 85년이었고, 변혁을 위한 폭력이 불가피한 것이 공공연히 주장 되었으며 또한 투쟁의 한 확장된 형태로 이해되어었다. 대다수 학생들에게 민중투쟁과 변혁의 사이를 좁혀야 했다. 조직운동은 전개해 왔던 학생들은 자신의 변혁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고민의 과제로 주어졌다. 정치적 이요로는 파쇼헌법철폐와 삼민주의 헌법정부를 개화국면에 대한 '변혁' 한편으로 삼민주의는 변혁이론적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수천명의 대중집회 가운데 민중·민족·민주의 삼민주의가 제기되고,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생회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방이 본격화된 것

자신의 조직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집애한 내부의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86년을 맞이하면서 이론상의 파쇼헌법철폐-헌법외-제헌의회로 당면 정치투쟁입장을 정리하게 된 세력조직들은 학생회조직을 정착하면서 정치투쟁의 대중적 공간으로 학생회조직을 활용했다. 5·3인민투쟁투 학생운동내 민민투, 자민투는 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대내에서는 자민투조직이 없었다. 학원은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강의실에서도 생활속에서도 운동권은 분리, 고립되는 가족주의에 매몰된다. 이 선상에서 한국사회 구성체논쟁이 시작되고 대중관과 조직관에 대한 실천적 모색이 자민투와 민민투 사이에 더욱 깊어졌으며 그러한 현상들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종파투쟁과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맹이적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민민투에서는 제헌의회소집, 민주주의의 민중중화투쟁의 기치를 걸고 극렬화된 선두투쟁을 주장하게 된다. 그 결과로 동대에서는 86년말 소위 비운동권이 학생회장에 당선된다. 87년은 학생운동 내부의 새로운 조류가 나타난다. 소위 대중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론과 선두 투쟁론을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론의 노선대립이 가시화된다. 대중운동노선에 입각한 활동은 85~86년에 보여줬던 운동권의 소수화를 극복하게 된다.

마주하는 이 순간에 생명을 얻어요. 사방이던 자기는 주고 자기가 얻는 사방이리 마주한 때 목숨은 얻어요 그리고 빛이 내면 병뚜껑 작은 공간으로 벅쳐 오는 리얼로 세상 중심이 되고 어디서나 번치는 향히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목숨을 채원하는 것. 멸망하오! 살아남은 문은 갖는 거예요. 마시실까? 그와 나 사이에 순수 와인 - 마주앙

특집기획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밀착취재 노동쟁의 유발시키는 외자기업 실태

우리 노동자 피땀뺏아 '뺑소니'

정부가 외자기업 유치와 외국 경영진의 권익을 옹호할때 국내 노동자는...

"이 사회에서 이처럼 노동자의 목소리가 미약한...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한국 스타는 1백%

직장폐쇄에 앞서 지난 7월16일에는 남자 관리자들이...

회사측은 현 노조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는 2일 현재 직장폐쇄중인 여성노동자 중심의 1공장과...

한국스타의 외곽에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실화로 위기에 빠졌다. 이에 새로운 자본축적의 조건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정책은 공장용지 사용...

이러한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고 노동권을 되찾기...

외자기업에서 노동운동의 전개는 반조립주의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외국자본의 노조...

'이윤적이다'며 대책없이 철수 급급

갖은 특혜 베풀던 정부 실업 늘어도 팔짱만

이윤 거의 자국으로... 민족 경제에 백해무익

동조합을 부정하기 위해 89년부터는 자본철수를...

그런데 이러한 외국자본에 의한 노동운동 파괴활동...

지난해 11월29일자 조선일보에 상공부 장관은...



에 맞서 해외로 철수하려는 외자기업 노동자들이...

혼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방의 경제발전은...

국내 노동악법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외국자본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대개의 일본계 자본에서 발생하는 철수로...

세번째 형태는 중소기업의 외자기업으로 국내의 경영진과의...

노동조합과 현지, 본사의 경영진과의 투쟁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자본철수의 경우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주축이 아닌 이 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 주축이 아닌 이 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이 주축이 아닌 이 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이 주축이 아닌 이 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이 주축이 아닌 이 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민중의 희망담은 합법정당

창당 열흘 앞둔 민중당

민중당(가칭)이 오는 10일 삼성동 한국종합 전시관에서 열리는 창당대회를 앞두고 창당 마무리를 하고있다.

지난 6월21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이우재·김성기)가 출범한 후 조직화 선결과 과업인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발기인 대회에서 결정된 민중당 창당6대 원칙은, 민중주의, 민주주의, 민주적 연립제도, 민중경제 확립, 진취적 당풍확립으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주의이다.

전노추 위원장=김문수)와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학생추진위원회(이하 전학추 위원장=김문수)는 각각 중앙당 산하 노동위 조직장관(위원장=이석원)로 제편할 것으로 결정된 민중당 하부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하루 전인 지난 6월20일 발족된 전학추(준비위)는 지난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각 지부별 하추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내 조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본교 경주캠퍼스 '민중정당건설 학추위'위원장 정동일(경영4)은 "학생 신분으로 당내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당 열흘 앞둔 민중당

민중당의 각 지역별 지부당 위원장을 살펴보면 구로 김구 김문수(전노추위원장), 강변구(전국광산노조 경동탄방 전지부장) 등 노동운동가들과 마산 지부당의 이수태(김해의창 농민회 회장) 씨, 평택 지부당의 정수원(전농부(장)서동 노동운동, 농민운동가 35명등이 지부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민중의 힘',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 아래 민중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외면되었던 민중들이 민중의 힘을 얻어 정당을 유지하는 비결은 민중이 아닌 민중 자신이 송급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갈

야당의 민중뜻 외면 폭로위한 제도권진출

노동자 농민 대거 참여로 정치세력화 꾀해

이 주축이 아닌 이 땅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생산대중과 청년학생 교수들 사외 각계 각층의 지식인들의 진보적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진보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민중을 정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전국노동자 추진위, 학생추진위, 교수추진위원회, 농민위원회, 여성위원회등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정당은 7-8명으로 구성된 교수위원회와 노동위원회(위원장=김문수), 정책국(위원장=정기표)등 세 분과가 공동모임을 통해 마련한 '정당' 시안을 놓고 계속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을 지속해 내일(1일) 4차 중앙위원회에서 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민' 4개항과 '본문' 12개조로 구성된 정당시안은 현대적 운동의 변혁과제를 '이땅에서 독재체제와 외세력 독재권력의 지배를 정산하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자·농민계급을 변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어 보수 정치권과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당 본문에서도 민중당은 독재체제 해체와 민주적 제권, 기간선언과 주요금융기관의 국유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과 주 40시간 노동과 생활임금 보장을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한편, 발기인 대회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 추진위원회'(이하



◇지난 6월21일 창당, 발기인 대회모습. 마지키 창당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졸업이후 개인을 당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원을 할수있으며 당내조직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수령이 용이하고 당의 개량성을 견지할수 있을것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한편, 지부당 창당대회는 지역 노동자농민, 학생들이 참여해 치루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의 직·간접적 탄압으로 창당신청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교 경주캠퍼스 학추위와 연계해 활동, 지난달 13일 창당포럼시 지부당(위원장=김문수)의 경우에도 시인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사내에 식당에서 창당대회를 치루기도 했다.

노동자 농민등 민중이 주체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외치는 민

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을 합법정당인 국회로 보내 수득적자본가들을 위한 정치·경제 정책대안 노동자 농민계급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치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노동자 농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민중당이 창당되는 것이다.

한편, 지부당 창당대회는 지역 노동자농민, 학생들이 참여해 치루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의 직·간접적 탄압으로 창당신청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교 경주캠퍼스 학추위와 연계해 활동, 지난달 13일 창당포럼시 지부당(위원장=김문수)의 경우에도 시인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사내에 식당에서 창당대회를 치루기도 했다.

노동자 농민등 민중이 주체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외치는 민

(차옥경기자)



진로·결정

진로와 함께 갑시다!

자금은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역동적이며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진로그룹이 있습니다. 열정적이며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 진로와 함께 갑시다!

Table with 2 columns: 모집부서 (Recruitment Department) and 모집요강 (Recruitment Requirements). It lists various departments like '관리사부서' and '기술연구직' along with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details.

진로와 함께 갑시다! 자금은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역동적이며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진로그룹이 있습니다. 열정적이며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 진로와 함께 갑시다!

진로그룹인력관리위원회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문학상특집

〈10면에서 이어짐〉

물결은 너무 거대해서, '하 허머'면 죽은 어머니의 조 존재를 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그럴수록 가슴이 깊은 곳에 마음의 문을 키우고 또 키웠 키웠습니다. 오 오로 어머니처럼 고난스러운 사 삶을 사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아 아 하고 사랑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만 내가 소 속해있는 세계에도 무 문제는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괴 괴롭혔을수록, 가족에게 상처 상처를 입혔을수록 나는 저 집집 영웅이 되어 갔고, 이러한 나의 미 믿음도 한 날 이 이기심일 뿐이었습니다. 세 상에서 가장 용기있고 저 정직한 적, 했지만 나 난 거짓말장이었습 니다. 그 날, 바 바로 그 날, 난 집장이 집장이었습니다. 저 절은 화석 화석의 공간... 나 난 일 어서야, 바 반항하려고, 그래야 그 그래야 해 했는데... 부 불빛이, 흐릿한 부 불빛 불빛이... 수 숨 이 마 막혀, 너 너무 가 갑갑해 ... 소 손 그 지 정그려온 소 손 버 벌레 벌레같은 손이, 그 손이 ... 내 몸이 모 몸이 구 굴어... 나 나는 소리 소리치지 못했습 니다. 나는 비집 비 비집잡입니다. 나 날 용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 다. 간신히 말을 끝낸 회원은 탈진 한 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급하 게 간호원을 부르는 의사의 고함소 리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고, 남 편과 나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 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회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 은 매일 폭을 맞았다. 그 아들 그렇 게 만든건 모두 내 죄인이다. 그 아인 몸시 외로웠고 사람을 그리워 했지만 난 아버지로서 따뜻한 마음 조차 나눠주지 못했다. 그 아이가 세상과의 갈등에 빠져 고민하고 방 황할때 난 아무런 도움이 할도 해 준 적이 없어. 지독한 이기주의자, 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루 하루를 슬로 자학하며 보낸 이 는 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 로 만취한 남편이 욕실에 들어갔을 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예감으로 황급히 문을 열어 채치자 남편은 타일 바닥에 양전혀 었드려 있었다. 미친 사람처럼 남 편을 뒤집고 불려보았지만 남편 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너덜너덜 쓰러진 남편은 그 후 로 영영 일어설 줄을 몰랐다.

회원의 병세가 다소 나아질 기미 가 보인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흥 분할 수 밖에 없었다. 회원의 치료 를 위해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도 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만 남편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 이면 좋겠다. 죽을 장면 너머로 여류 례기 바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회원은 보았을때, 복구병에선 울적 불행이리라 짐작했다. 아버지가 돌 아가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말 야 내가 죽인거야. 내가 아버지 를, 내게 등을 보이고 서있는 회원 의 어깨를 미구 흔들며대며 나는 고향을 질렀다. 땀방울이 경적되 어 있던 회원의 어깨에 떨어 풀리 면서 회원은 그 그리에 쓰러 주 지않았다.

다소 치료의 진전을 나타내던 회 원의 병세가 더욱 악화된 건 아버 지의 죽을 소식을 접하고 나서였 다. 회원이 입원한지 열 달이 되어 갈 무렵 병원측에서 회원이 죽었 다. 단말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꾸 중히 간호하라는 의사의 말은 아무 위안도 주지 못했다. 회원과 나, 둘만의 생활이 시작될지 녀 달이 지났지만 회원의 입술은 더욱 더 굳어갈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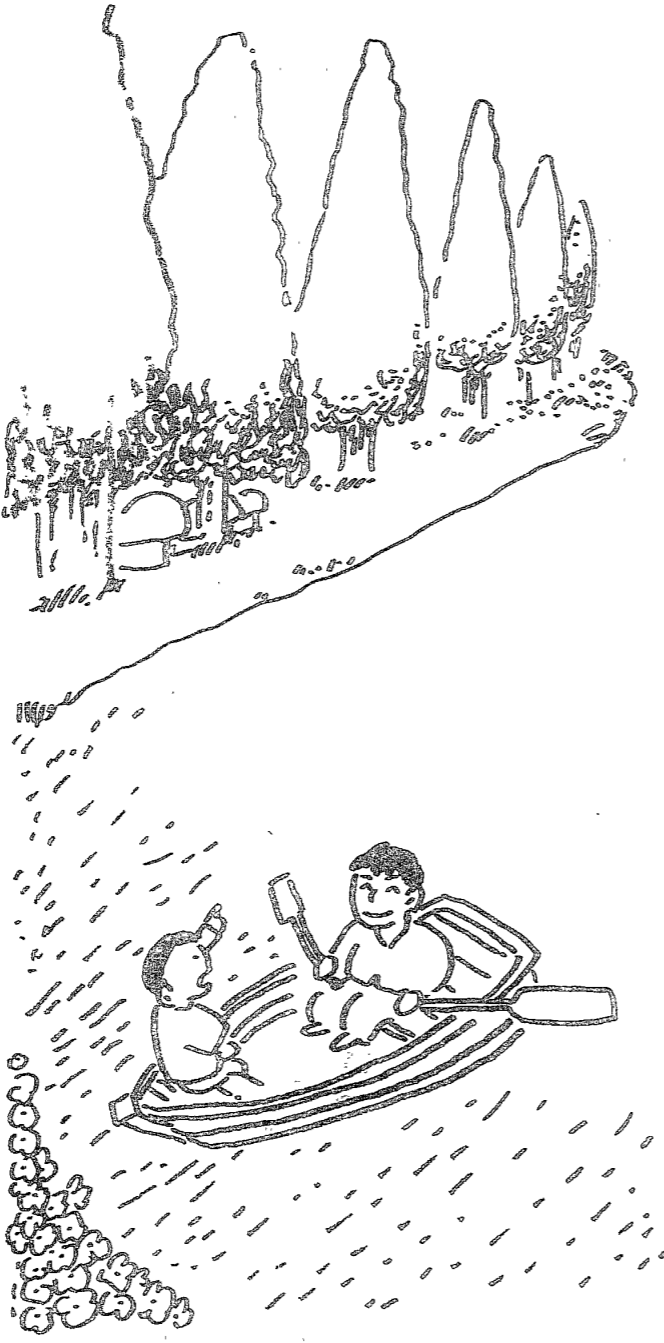
가실 가족 원원하게 자리잡은 이 들을 바라보다. 벌써 몇 시간째 불 바이처럼 앉아있는 나의 손 안엔 미지근해진 사과가 들려있다. 나는 손톱으로 사과의 속살을 툭툭 찌르 고 씹어낸다. 사과에서 흘러나는 단물로 인해 손바닥은 끈적끈적하 게 되고, 싱그레도 간다. 수도꼭 지를 틀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말 기 체 흐르도록 씻는다. 회원과 나 사이에 연결된 절친 끈도 이처럼 시원스런 물결기에 깨끗이 잘라나 갈 수 있다면, 설명 상술의 외전적 열 회원은 미국으로 보낸대도 난 결코 자유롭지 못하리라. 어느 난 곳에서 회원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한, 나는 그 아이의 그늘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평생을 허우적거릴 것 이다. 아, 남아있는 나의 삶에 무 거운 업보처럼 회원을 통해 지고 살아야 하나. 끝까지 지근지근 아파오며 지각한다. 손가락으로 판 자를 휘둘러 시작이 누른다.

지겨워, 신음소리가. 꿈꾸며 도매된 어 들을 듣고 회원의 신음소리는 미개하 게 진동한다. 나는 회원의 방문 쪽 으로 날카롭게 시선으로 쏘아대. 참 을 수가 없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화를 삭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썩썩거리며 나는 분노 커져왔고 회원의 방으로 휘적휘적 걸어간다.

활짝 문을 열어제친 순간 나는 갑작스런 것처럼 제자리에 꽂았이 멈춰선다. 이 광경을 어떻게, 도대 체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 다. 될 수 있는 한 멀리, 아주 멀 리 회원에게서 떠나야 한다. 아, 나 내 기억 속에서 회원의 존재는 강 이 부수되고 사라져야 한다. 손 에 들린 찻잔이 부르르 떨려 찻물 이 쏟아진다. 나는 허겁지겁 바다

시부문

그심 저수지



심어 호 마을은
어깨를 늘어뜨린 미류나무의 가슴에서
깊은 속주름의 나이테를 키우고 있다
초저녁 붉은 달빛이
자갈길 지나 쉼 목소리로 달려오는
바람의 목 언저리에서 무너지고 나면
어둠에 발목 잡그는 양어장 불빛과
역새풀 안고 돌아서는 해진 투망이 보인다
즐기부터 마르는 팔월의 깨꽃은
참나무집 뒷밭에서 정강이 드러내며
한밤의 갈퀴손이 되어 서있고
좌대를 빌어 밤낚시에 잠기는
낯선 이웃들의 큰 목소리를 좇아
등푸른 이끼들 기어오르는 스텝트지붕의
오지랴에서
물길 슈아내는 노를 젓는다
한평 남짓한 목선의 뱃머리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잔잔한 벼꽃이 피면
피를 뺏으며 무논에 힘을 주는 일이 아직은
수몰된 이웃들의 가쁜 숨소리에 잠겨도
손금 가득히 벼이랑의 꿈 길어 올리는
참봉어메의 물방울 보며 노를 젓는다

있다. 날 가지게요. 내 몸통아리 전부, 당시 마음대로 가지게요. 날 가지게요. 당시 원하는 대로 날 가지게요. 이 세 빛은 방 한쪽 구석으로 어둠을 물어내기 시작한다. 나는 두 팔로 무릎을 감싸안고 조금씩 서서지는 밤의 음영을 바라본다. 작업대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여러 석고상들의 윤곽은 하나의 또렷한 선과 면으로 살아있다. 밤을 어둠이 두유이 대조적으로 차가운 색과 상의 얼굴은 창백하게 선을 가져간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유독 솟

은 솟바, 매끄러운 턱 선, 은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석고상의 차가 운 살갗을 파고든다. 오스스 뜰는 소름 때문에 나는 팔과 다리를 쓰 다듬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으면, 내 발걸음은 유실로 향한다. 육조 가 될까 더운 물과 채우고 비스듬히 몸을 누인다. 목 언저리에서 활랑 거리는 물은 장난스런기조자 하다. 나쁜 몸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 어낸 것처럼 훌거림을 느낀다. 주위와의 복잡한 관계 맺음도, 끊 어놓았어 마찰하며 갈수록는 갖가지 상념들도 맑끔히 지워버릴 수 있다. 나는 좀 더 깊숙히 몸을 가라 앉히고 눈을 감는다.

수줍음에 의해 뿌연듯 흐려진 거 울의 표면을 뒤안면다. 발그레하게 상기된 두 볼과 탄력있는 귤기수를 가진 여인이 우뚝키니 서있다. 원 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엔 너 무 늦지 않았을까. 예전의 그 활기 차고 생기있는 생활은 돌아오지 싶 다. 이제 널 보낼거야 난 네게 서 세우고 싶다.

실로 오고간만에 옷장에서 외출 복을 꺼내 입는다. 젖은 머리카락이 마르기도 전에 짐을 나른다. 딱히 그리워도 없다. 오로지 나와 회원 두 사람만이 정면으로 대결해야 한 다. 될 수 있는 한 멀리, 아주 멀 리 회원에게서 떠나야 한다. 아, 나 내 기억 속에서 회원의 존재는 강 이 부수되고 사라져야 한다. 손 에 들린 찻잔이 부르르 떨려 찻물 이 쏟아진다. 나는 허겁지겁 바다

회원은 이미 숨을 거두어 병원으로 실려간 것은 아닐까. 다급하게 방문을 열어제친다. '어머니 꽃, 꽃이 피 었어오라는 확실한 문장이 되어 켜 전을 때린다.

은 꽃바, 매끄러운 턱 선, 은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석고상의 차가 운 살갗을 파고든다. 오스스 뜰는 소름 때문에 나는 팔과 다리를 쓰 다듬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으면, 내 발걸음은 유실로 향한다. 육조 가 될까 더운 물과 채우고 비스듬히 몸을 누인다. 목 언저리에서 활랑 거리는 물은 장난스런기조자 하다. 나쁜 몸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 어낸 것처럼 훌거림을 느낀다. 주위와의 복잡한 관계 맺음도, 끊 어놓았어 마찰하며 갈수록는 갖가지 상념들도 맑끔히 지워버릴 수 있다. 나는 좀 더 깊숙히 몸을 가라 앉히고 눈을 감는다.

수줍음에 의해 뿌연듯 흐려진 거 울의 표면을 뒤안면다. 발그레하게 상기된 두 볼과 탄력있는 귤기수를 가진 여인이 우뚝키니 서있다. 원 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엔 너 무 늦지 않았을까. 예전의 그 활기 차고 생기있는 생활은 돌아오지 싶 다. 이제 널 보낼거야 난 네게 서 세우고 싶다.

실로 오고간만에 옷장에서 외출 복을 꺼내 입는다. 젖은 머리카락이 마르기도 전에 짐을 나른다. 딱히 그리워도 없다. 오로지 나와 회원 두 사람만이 정면으로 대결해야 한 다. 될 수 있는 한 멀리, 아주 멀 리 회원에게서 떠나야 한다. 아, 나 내 기억 속에서 회원의 존재는 강 이 부수되고 사라져야 한다. 손 에 들린 찻잔이 부르르 떨려 찻물 이 쏟아진다. 나는 허겁지겁 바다

아침 꽃시장은 일찍이 나선 소 메 상인들이 제법 시골비적하 다. 수천 수만 송이의 온갖 꽃들이 내뿜는 진한 향기에 이끌려 나는 상류 가게 앞으로 다가간다. 노랑 고 백간 원색의 꽃들에 둘러싸여 지주뿔 국화는 가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 색상이 화려한 여러 가지 꽃 중에서 지주뿔 국화는 유 독 내 시신을 끌어당긴다. 예뻐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지주뿔 국화의 수수한 매력에, 나는 까닭 모를 흥 분과 질투심을 느낀다. 지주뿔 국화를 부쩍 좋아하시나 보지요?

꽃을 포장하면서 주인 여자가 레적인 인사말을 건넨다. 아오, 네 가 아니라 회원이 좋아하는 겁니 다. 죽은 제 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꽃이었으니까요. 국화가 한창일 무렵이면, 그 어린 인제나 자기 방 책상 위에 지주뿔 국화를 보란 듯 이 펼쳐놓곤 했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헤매다 지주뿔 국화로 다시 태어나곤 했던 겁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친하는 것 에 대답한다. 한아름이나 나는 국 화 다발을 보듬고 나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온다.

조금만 기다려. 네가 사랑하는 죽은 어머니 곁으로 갈 수 있을 테 니까. 이제 널 보낼거야 난 네게 서 아주 멀리 떠나고 싶어. 이 지긋지긋한 미궁 속에서 탈출하고 싶어. 국화 다발에 얼굴을 묻고 나 는 나직하게 중얼거린다. 회원과 나의 뒤엉킨 연줄을 끊고 저 파아

당신소감



김재홍

그렇다. 멀리 두고는 고향과 식구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는 어둡고 차가운 시간에 '별' 을 밝히는 것이지. 여기서 새 로움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으 로 극복되는 것이겠지. 바로 믿음과 극복을 통하여 그 불을 밝힐 수 있으리라.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보다 넓고 보다 큰 세계를 만 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형제들, 민중운동에 힘쓰 는 모든 분들에게 '내일'을 다짐 합니다. 김재홍

좋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 자. 라면 10개, 계란 3개, 부탄 가스 1개 뺐이다. 적어도 40년 은 버틸 수 있겠지. 당장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시평

감각적으로도 뛰어나고 수사 도 화려한 일정한 수준에 달한 시는 많았지만, 자신이 부담된 문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하고 밀 도있게 표현한 시는 많지 않았 다. 젊음 갖기였지만 공인하 맛을 뿌리려는 경향도 극복하 지 않고는 참으로 좋은 시는 쓰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호(고명성)는 맑고 깨끗한 심상은 살만하나 사물을 보는 눈이 아직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안개'(이태형)는 시의 내용 의 불분명한 대목이 너무 많은 것이 흠이다. '비무장지대'(김중규)는 제주 가 반쪽이면서도 너무 거기에 의존해 오히려 감동을 줄이고 있다. '구포에서'(이선미)는 자신이 먼저 소제에 빠져들어감으로써 읽는 이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흠이 있다. 이상 다섯 사람의 가운데서 '고삼저수지'를 본상, '고명성' 을 가장으로 뽑았지만 다른 셋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 는 시들이다. 앞으로 우리 문 학을 위해 큰 몫을 하리라 믿 는다. 김정호(사범대 국교과교수) 신경림(동문·시인)

에서 영연히 풀려나게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회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병과 쏟아진 붉 은 케첩을 내려다본다. 내 상상은 동경거리기 시작한다. 스스로 다리 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을 것만 같다.

사람들과 차량들의 물결로 거리 는 변질스럽다. 발을 뺀자 바깥 기도 하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닌다. 잔 뜩 저푸른 표정으로 자신의 목격자 를 향해 제때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란 혼자 특 별하여나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낀 다. 서럽게 밀려드는 희정한 마음 을 감출 수가 없어 주위를 둘러보 지만 거리의 풍경은 황량하고 살쓸 하거나 하다. 회원도 그랬을까. 나 를 슬프게 하는 이 막막한 기분은 그 아이도 경험했을까. 지독한 의 도움을 피해서 뜻에 남몰래 호느 기 진 않았을지. 나는 회원의 방 향을 방만하고 외면했던가. 어머니 와 회원의 관계로 만나지 않았더라 면, 어떤 우연 좋은 사이로 지냈을 는지도 모르겠어. 언젠가 회원이 내게 던진 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애초부터 어긋난 것인진 모르나. 그래서 난 회원에게 정중으로 최선 을 다했던가. 그 아이에게 좀 더 충실할 수 없었던가.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크게 들이킨다.

남자한 괴물들, 여기저기 뜰겨져 나간 살점들, 아파트 현관 앞에 필 처진 사과의 잔인한 광경들을 확인 하기가 두려워 나는 아파트 비상계 단으로 올라간다. 거실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나는 베란다로 향한다. 풍성하게 꽃피었던 지주뿔 국화는 온데간데 가 없다. 나는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회원의 깨진 사기조각 과 얼크러진 국화꽃들이 널브러져 있다. 회원은 회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미 숨을 거두어 병원으 로 실려간 것은 아닐까. 나는 다급 하게 회원의 방문을 열어제친다.

이요...이요...이요...이요

회원은 내 앞으로 불쑥 꽃을 내 민다. 의미도 분명치 않은 회원의 신음소리가 갑자기 어머니, 꽃이, 꽃이 피었어오. 라는 확실한 문장이 되어 켜 전을 때린다. 어머니, 꽃이, 꽃이 피었어오. 어머니, 꽃, 꽃이 피었어오. 어머니, 꽃, 꽃이...

기슬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나는 베란다로 향한다. 풍성하게 꽃피었던 지주뿔 국화는 온데간데 가 없다. 나는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회원의 깨진 사기조각 과 얼크러진 국화꽃들이 널브러져 있다. 회원은 회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미 숨을 거두어 병원으 로 실려간 것은 아닐까. 나는 다급 하게 회원의 방문을 열어제친다.

이요...이요...이요...이요

이요...이요...이요...이요

이요...이요...이요...이요

이요...이요...이요...이요

이요...이요...이요...이요

이요...이요...이요...이요

이요...이요...이요...이요

교양문화

동학의 문예일꾼에게 드리는 제언<下>

문예파의 이해에 걸맞는 문예조직 건설해야

학생투고

2. 동학의 문예현상과 그 극복방향에 대하여

(2)조직의 측면

우리의 고민을 한결 좀 더 내 단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정치와 문예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것 (2)문예일꾼에게 맡겨진 소중한 임무를 충실히 자각할 것 (3)문예일꾼의 사상적 발전에 장벽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는 한결같이 '정치와 문예'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하는냐에 그 중심축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의 측면에 관한 문제 또한 '정치조직과 예술역량'의 관계를 그 중심축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밝히고 싶은 점은,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조직'이란 조직노선의 '대중조직', '통일전선조직'과 구별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치력이 발휘되는 조직'으로서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세 지배자본주의사회의 우리나라에선 '계급·계층별 자주적 대중조직'-'통일전선조직'-'전위조직'이 그 대표적 형태입니다.

자, 이제 동학의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학의 대부분의 문예조직은 자기의 위상을 자주적 대중문예조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나 단대, 과 전체적으로는 총학생회 산하에 있습니다. 즉 청년학생의 자주적대중조직인 총학생회의 부분으로서 기능하며 청년학생운동에 문예란 부귀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위상 설정이 큰 문제가 없을 듯함에도 불구하고 막 막히 있는 우리의 체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겠습니까?

동학의 문예일꾼은 나름대로 학생회 강하에 복무하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단대, 과학생회에서 제기하는 문예실적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몇번은 꼬박 새웠던 적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까닭에서인지 문예파가 자주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고 문예파의 창작과 예술적 승리를 위해 베풀어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

문예파의 자주적 요구, 학생회 사업에 반영시켜야

'문예강습'등 광범한 실천통한 대중성확보 필요

지 학생회는 일감만 주고 필요한 돈이나 타다 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증을 정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동학의 학생회를 위해 문예일꾼이 해야 할 임무는 전담되어도 문예일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전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예조직은 문예를 통해 자기와 사회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투쟁의 내용을 형상화하여 선전·선동하는 임무도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예일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학생회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채 학생회사업의 필요에 의한 선전·선동의 임무만이 일면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 단대 차원의 문예파가 풀간체계에 속해 있지 못하고 집행부서의 하나인 문화부 산하에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동아리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이 존재함에도 동연 분과체계의 형식화 내지 내용 부재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일집중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개조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각급 단위의 문예파가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집약 집중하여 학생회사업 전반에 반영시킬 수 있는 틀, 즉 학내내운동연합의 건설이겠지만 동학의 문예 현실은 결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단위의 발전정도에 근거하지 않은 학내연의 건설은 조직형식주의라는 더 커다란 폐해를 남길 뿐입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주적 학생회'론은 이 문제에 대해 소중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적 학생회'론은 그동안 선진연방에 근거한 집행부 중심의 사업을 비판하며 곳곳에서 학우들이 학생회사업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엔 창작 건설될 학회의 명인인 각종 소모품의 대표를 파견영위에 결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회가 형식적 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

면 내용을 갖고있는 소모품의 대표를 적극 운영위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고 내용을 중심으로 형식의 문제를 사고하는 것입니다.

'자주적 학생회'론의 핵심이 동학의 문예현상이라는 지향에 내리비추면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선 과, 단대 차원의 문예파는 실제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이해를 선

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진출이 많이 이뤄지면 이뤄질 수록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조직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문예가 소수 전문 영역만의 것이라는 생각은 지배계급의 생각이 가까운 낡은 전제임이 자명합니다. 대중의 자주성을 믿고 대중을 주인·주체로 세울 때만이 참다운 문예운동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동학에선 '88년 '89년을 거쳐

용을 주장적으로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예조직의 활동이 좁은 선전·선동의 임무에 집중되면서 창작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의 발전은 좌시되고 있습니다. 문예조직의 사업내용은 문예조직의 성원들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문예조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중의 문예교사가 준비되고 있지 못합니다. 문예예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문예에 대한 신비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대중의 문예교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문예교사는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만드는 교양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문예조직인 한 명의 문예교사가 있어야만 문예조직의 수평적성과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예조직은 이러한 대중적 대량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중적 문예실천을 벌여 산재해 있는 많은 잠재적 문예일꾼을 문예조직의 주위에 묶어야 합니다. 대중적 문예실천의 형태로는 일반 학우를 상대로 하는 문예강습소 운영이나 초보적 형태의 공동 문예실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자문예조직에선 '문예교실'을 운영하거나, 문예조직이 없는 사업장과의 연대실천을 통해 그 사업장에 문예조직을 건설하는 등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 함께가는 친구에게

이제는 포부에 턱없이 못미치는 글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야 했는데 문예의 극히 작은 일부만, 그것도 아주 추상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동학의 문예일꾼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에서 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자들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동자들로부터 단위 문예파의 승리를, 단위의 승리를부터 동학의 승리를, 동학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단위의 승리를 원하길 바랍니다.

조 동 천 (문과대·국문과)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사주팔자의 운명론

安昌範 (한의대 교수·침구학)



간파에 버리고 필자 소관으로 돌려버리는 버릇이 있다.

이같은 의식구조는 노력하지 않고 살라는 요행심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필자 소관으로 돌려고 성공하면 '상팔자'라하여 팔자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심경 우리는 팔자타령을 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하늘의 기운인 五運(木, 火, 土, 金, 水)과 땅의 기운인 六氣(風, 寒, 濕, 燥, 火)를 十干(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과 十二支(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를 배합하여 하늘과 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처럼 소박한 유휘론이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마술로 둔갑한 것이다. 사주(四柱)란 태어난 생년·월·일·시이며 여기에 十干과 十二支를 조합하여 四柱八字가 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인간 만사는 萬有의 연쇄원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운명은 의사와 관계없이 미리 결정되어있다는 속명론에 빠져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서 이뤄진다는 자유의지론과는 너무나 상극적이다. 스스로 노력하여 앞길을 개척해 나가려 하지않고 이미 정해진 운명을 따라 제약을 피하고 복을 기원하는 현실 인주의 願望사상이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주궁합이 나쁘다고 혼사가 깨어지고, 날씨가 결혼하고 이사는 것은 우주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일부에선 관습으로 지켜지고 있다.

명나 太極가 동국후 점장자들을 시켜 자기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천하에서 찾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한다. 마침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村民으로 생활이 극빈하여 별 13통을 쳐 호구지책으로 삼고 있었다 한다. 太極가 웃으면서 '술거니, 집은 13통에 정사를 퍼는데 그대는 13통에 벌을 치고 있으니 다가는 바로 나 다스림은 갈구냐하고 그에게 후히 해주고 '壽命을 받을 것이 못된다(命不見)'고 했다.

운명에 도전하여 운명의 물질을 비껴놓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만다. 요행이나 버리고 황당무계한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무책임한 운명론을 버릴때가 되었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金甲成 (한의과 대학 조교수·동국한방병원 침구과장)

허리는 20대 초반부터 아프다(?)

의학에서는 경락과 풍·한·습등의 육기적 인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요통발생의 가장 선행적인 원인으로서는 "신허(腎虛)"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모체로 부



유시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신허(腎虛)나 퇴행성 변화는 남녀 또는 신체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대개 20대 초반에서 시작되어 26세경부터 활발히 진행되며 이후 무릎에 갈때까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니 결국 요통은 20대 초반부터 전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다. 요통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은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의 유지, 특히 강의 실명에서 강의를 받을 때 엉덩이가 의자 뒷면에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할것이며 평소 아침 기상후 체조요법은 허리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보강할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할수 있다. 일단 손상을 받아 허리에 통증을 느끼거나 원인이 허리가 아플때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도 만성적 요통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수있다.

군·행정·병·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취
●사무자동화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병 Chart
●매월 1회 단독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부
합인성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프랑스어
11~12월 학기 개강
●개강: '90.11.5(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Nouveau/Différent/Actuel
●mauger I, II, sans fron. I, II, III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ème, 문학, 민화강독반
●conversation libre. 시사예매반
seoul-centre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555-1125, 1126 (강남)
PUSAN: 822-3601 KANGJU: 826-0189
TAEJEON: 22-4630 DAEJEON: 254-3478
alliance française 韓國文化財團

강 11월 1일
영어·일어
러시아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각역·종로 2가·734-2442
시사영어학원

반쪽英語 반쪽人生
반쪽은 반쪽밖에 될수 없습니다. 더욱이 반쪽 實力으로는 절대로 雄飛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청운의 포부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코리아헤럴드직영 외국어학원과 어학연수원에서 실현하십시오.
●러시아어 ●TOEFL종합반 ●한국語
※ 관광·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 및 종합평가도 해드립니다.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중구 회현동3가 1-12 (본사9층) 지하철 4 호선 명동역
756-7711 (교) 483,484

서울캠퍼스 보도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단대선거 혼탁하게 진행 민중사단 유인물... '불법'

대자보 논쟁등 과열 선거 예고

서울캠퍼스 11개 단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내달 6일부터 9일 사이에 치러진다.

이번 단대선거는 총학11원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 분명하며 벌써부터 정과간 대자보논쟁이 시작되는 등 오는 11월은 선거열풍에 휩쓸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어제(30일) '민중사단' 사단 각단체 임부후보자라는 유인물이 이번 단대 선거의 원칙을 무시한채 불법 배포에 사회대·사법대·아간강과 3개 단과에서 이 유인물들이 기명된 후보들이 중선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등 불법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중선위 선거 제도의 내용을 몇몇 단체가 공동 작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유인물은 중선위에 먼저 제출한 후 공표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단대선거가 홍보물 부착에 관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총학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불법'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내달 6·7일 양일간 본관앞에서 실시된다. 지난 16일 선관위를 구성한 불대학생회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내달 1일, 5일 오후 2시에 걸쳐 유세를 하며, 내달 6·7일 양일간 투표할 때 9일 최종 학

정공고한다.

문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내달 7·8일 양일간 명진관 앞에서 실시된다. 문과대 선관위는 지난 26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등록을 마감했으며 오는 2일 오후 6시 명진관 앞에서 1차유세 및 공청회를 갖고 오는 6일 오후 6시 명진관 앞에서 2차유세를 갖는다.

이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3층 이과대 학생회실)에서 실시된다. 한편 오늘 31일 1차유세와 5일 2차유세를 오후 1시 과학관 앞에서 갖고 오는 1일에는 공청회(장소미정)가 있다.

법과대 법대는 지난 30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7·8일 양일간 선거를 실시한다.

사회대 정·부 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지난 22일 5시 50분 마감한 가운데 선거 일정은 오늘(31일)과 5일에 유세를 갖고 6일 투표를 실시, 선출한다.

경상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24일부터 26일까지 등록 마감했으며 오늘(31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내달 8·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공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6·7일 양일간 있게 된다. 공과대 선거일정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후보등록기간이었으며, 지난 27일 임부후보자 공고, 내달 1일 1차선거유세, 5일 2차선거유세일이고, 8일 당선공고, 9일 당선화장된다.

사법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대비해 지난 11일 선관위가 구성되어 후보자 등록을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받았고 오는 1일과 5일 오후 2시에 학관 앞에서 유세를 갖고 6·7일 양일간 선거를 실시한다.

예술대 예술대를 미술학과, 연영과 2개 학생회장이 1년씩 번갈아 점입한다는 선거특례 조항에 따라 차

	기호1번	기호 2번
불교대	문병렬(불교3) 한지윤(불교3)	김관(불교3)
문과대	조현관(국문3) 정미경(영문2)	정석영(국문3)
이과대	이규옥(물리3) 한문석(수학2)	이민수(물리3) 김주환(수학2)
법과대	강유식(법학3) 김종욱(정치3) 김영길(사회3)	박성주(법학3) 윤오순(정치3) 이진복(사회2)
경상대	임치성(경제3) 최미선(경영3)	홍정의(국교3) 정민경(국교3)
농과대	유기주(농학4)	
공과대	홍중욱(전기3)	
사범대	김현재(국교3) 이남숙(국교3)	송진태(무예3) 홍현기(회계2)
예술대	미정	미정
아간강과	김정규(경제2) 하우영(경제2)	미정

'민주주의론' 학술심포지움

내달 9일 대학원 인사연 주최로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제3회 학술심포지움'이 '민주주의론'을 주제로 내달 9일 오후 2시 동국관(L101)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민주주의의론에 대한 철학적 반성(강유원·철학박사4기) △PT독재:

민주성과 억압성의 변증법적 동일(이재국·정치학박사3기) △미국헌법 제정에 관한 소고(연동원·사회박사3기) △한국의 신중간 계급과 민주화운동(사회학 연구회)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인문·사회과학전

반에 관한 연구활동 증진 및 동국대학원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이후 두번째 열리게 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그동안 축적된 논의의 성과가 집약된 것으로 이후 본교 학술활동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 모의국회' 개최

올바른 국회 풍토조성 모색

정치외교학과 주최 제6회 '대통령 모의국회'가 헌정세 연구분과와 올바른 국회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이래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중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모의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외교 등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회의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부별 대정부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차민·내각제 개헌, 지자제, 보안사 민간사찰 △경계제·우루파이 라운드(U·R) 협상, 주택문제, 물가불안 △사외·문화권·민영방문문제, 매춘, 민주화운동원인 스톱일 외교: 북방정책, 남북교류증진

리피담 등이다.

이번 모의국회는 이제까지의 국회가 나름대로 본모습을 갖추지 못한채 단순한 당파간의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는 현 정치상황을 비판하고 참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올바른 국회풍토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원 학생회 선거

제7대 대학원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고, 오는 14·15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의 임부후보자 자격요건은 "정·부 학생회장후보는 같은 계열에서 출마할 수 없으며, 1학기가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오는 12·13일 양일간 1·2차 유세를 동국관(L101)에서 갖게된다.

불대인의 한마당 잔치

요가시범- 전시회등 가져

불대인의 하나됨과 자발적 참여의 학생회 건설을 위한 불대학생회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불상양동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오는 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 문화제, 9일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농가사상연구회의 요가시범, 불상양동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8일 문화제, 9일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농가사상연구회의 요가시범, 불상양동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부속 경주병원 개원등 미봉책 개선 시급

의대생, 본교-조계사까지 향의 농성

부속경주병원 조기개원과 포항병원의 증축을 요구하는 의대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이 미응답인 자제를 취하자 의과대학 학생 50여명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조계사, 의로원 기획관리실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등 반발이 큰 가운데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농성은 지난 17일 경주캠퍼스 총장·부총장실 점거에 이어 것으로 서울캠퍼스에 30여명 조계사에 20여명이 18일 오전 8시경, 서울캠퍼스에 도착한 학생들은 취임식관로에 파바라는 이유로 총무원이 철수를 요청, 이날 오후 5시경 총무원장 면담을 하지 못한채 돌아갔다.

원 기획관리실장실을 점거한 후 서울캠퍼스와 서울시에 각 사할주지에게 현 경주캠퍼스의 의대상황을 알리는 홍보를 했다.

18일 오후 3시경 조계사에 도착한 총무원장 면담을 요구한 학생들은 취임식관로에 파바라는 이유로 총무원이 철수를 요청, 이날 오후 5시경 총무원장 면담을 하지 못한채 돌아갔다.

벽시계 교체 질실

서울캠퍼스 명진관과 해피관 건물외부의 벽시계가 갖은 고장으로 계속불량을 못해 세시계로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 교정된 이 시계들은 한민 보수하러던 부분을 일선서 수입해야 하고 수리비용 또한 50여만원이 드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세시계로의 교체가 대두되고 있으나 총무과, 관제과등 관련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이다.

'민주동문화 협의회' 창립

의장에 본교 신경림회장 등

'전국대학 민주동문화 대표자 협의회 창립대회'가 지난 21일 연세대(무악강)에서 30여개 대학동문화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동문화(이하 민동)는 현재 50여개 대학에서 조직된 상해이나 질제사업을 주관할 연합체가 없었다는 지체 평가속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별화된 사회의 전 진보역량을 결집시켜 대학을 위한 민주교육공간으로 만드는 사업 △복합적인 계민주방문론의 조정·통합기능 △다문화민주화 사업을 촉진시킬 등을 결의했다.

또한 민동은 기존 동창회와는 달리 정치적 가치를 기준으로 민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의 동문들을 이끌어간다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창립대회에서 상임의장에는 오종일(연세대민주동문화회)씨가, 공동의장단에

는 본교 민동회장 신경림(영문·58학)씨를 비롯 권승세(성대)·정관진(영남대)·씨가 각각 선임됐다.

보안사 불법 사찰규탄법회

정각원-동대문간 평화행진

'10·27법난 및 보안사불법사찰 규탄법회'가 보안사불법사찰 대책위원회(위원장=진관스님) 주최로 지난 28일 오후 2시 불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각원에서 열렸다.

法正스님(대취 사무국장·사회3)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사찰사태보고, 규탄연설, 윤이병후원대취위 경과보고

고, 성명서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진관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불교도는 불교계에 침투된 정보기관의 손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준계엄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현정권의 국민탄압을 폭로했다.

이자리에서 진관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불교도는 불교계에 침투된 정보기관의 손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준계엄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현정권의 국민탄압을 폭로했다.

단대 선거전(戰)...

○...요즘 동학내에 도깨비들이 등장하였다는데, 각 단과대 선거가 임박해 오자, 후보들간의 선거전(戰)을 방불케하는 선전물부착경쟁이 학우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무엇 선거란 향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 평가받고 이후 투쟁속으로 포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요즘의 풍토는 선거에

새 정권 운동 캠페인

○...No대통령이 전정을 선포하자, 전 국민이 전신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안이 불평이 쏟아져.

10·13특별선언은 "세월서 새생활운동"이란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민중운동단위의 무기임이 여실히 입증된 요즈음인데...

소위 거리 캠페인에 육

단대선거 '자승지벽하는 자가 당락에' 빠져서는 안될 것

의대생이 바로 그것인데 민주주의의 역사적 운명인 단과대 학생들의 극구 부인해 오던 이들 부부의 오리발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평.

한편 노대통령이 발표한

세월서 운동이 아니라 세정권 운동은 벌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민자부부 별거상대

○...은 2월에 결혼을 우리 고 영구장기점(?)의 신문이 게재 한이러던 민주부부가 현재 혼인 서약서가 문제점에 풍가 루 집안이 다 됐다.

박종병 사 부총장에 의 해 유출된 '내 각계개원 합

올해내 내각제 조속추진을

보며 본 회전부대 "기왕 일찌러진 불인데 뭐?"라며 자위하는 민주부부의 하소연에는 그만 아연실색...

은방글, 가을방학

○...은방인들이 여행에도 없던 가을방학을 맞아 귀향길이 바쁘다던데,

통일백상대에게 기간을 맞아 25·26 양일간 휴강이 결정되자 과별 체육대회나 행사는 아랑곳 않고 밀려버린 빨래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학우가 다반사여서 신수나 집행인을 제외하고는

한민족 해방

백상제전에 참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썰렁했다는 뒷소문.

영성하게 앉아있는 관중석을 바라본 한 선수 "행사 참가도 많으면서 단결만 외치는 것은 여전하다"며 -하

11월3일 학생의 날 총궐기를 위한 기획광고

학생의 날을 맞는 청년학도는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학생의 날 청년학도의 총궐기는 현 범죄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일제의 폭거에 당당히 맞섰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학생의 날을 맞는 청년학도는 마땅 그 의미만을 되새기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비록 당시에도 '엘리트'라는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식민통치아래에서 단 한사람도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일제에 맞서 의연히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은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의 획책하고,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있고, 외세가 음흉한 눈으로 지켜 보고있는 시대에 청년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낙담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선배들에 대해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어선다면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당당한 모습이 식민통치를 종식시켰다면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겼습니다"라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

송갑석 전대협장의 즉각 석방을 원한다.

생활문화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서로 돕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명절 때마다 기능직에게 선물 전달한 정운무교수

“그분의 그런 행동은 그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애교심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만하면 있어버릴 일을 근 20여년 동안 한번도 잊지않고 챙겨주는 정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누세탁, 양말 세탁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내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 밤늦도록 학교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라 생각되어 조금이나마 심적 힘이 될까해서 시작했는데, 이젠 이 학교에 있는 날

임, 동창회 등 한달에 10일정도는 모임에 참가합니다.”라고 답하고 “우린 너무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의사전달 수단만이 아닌 정이 흐르는 대화를 잃어가는것 같습니다.”라며 요즘세대를 아쉬워했다. 끝으로 교수님의 수업신념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우선 교수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정보를 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적당히 질문만 따졌다는 식이 아니라 반박과 의심을 갖고, 연구 실이라도 찾아서 깊이 토론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라며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시행지 답안을 정성스레 작성하고 많은 노력과 갖은 페포트를 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이는 정교수님을 보며, 주어진 일에 충실하

인사이드

우리로서 그 성의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선물받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겁니다.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잘 좀 전해주세요”등. 본관, 해화관, 정문 등에 근무하는 수위직자들의 이런 이구동성을 들으며 기자는 대학원 5층,

20여년간 거르지 않고 온정 베풀어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

정운무교수님 연구실을 찾았다. 교수님 연구실 조교 박동관씨는 “교수님은 한마디로 정열하고 대접 갑니다. 레포트나 출석의 성실도를 많이 성취에 반영합니다. 국민학교 때 ‘호랑이 선생님’을 연상하면 될겁니다.”라며 정교수님을 설명한다. 정교수님은 근20여년동안 본교 수위직에서, 경비, 근로직, 운전기사까지 70여분에게 추서, 연말 1년에 2번씩 양말세탁나 비누세탁을 보관 수위실에 맡기며 “밤낮없이 학교위에 고생하시는 데 자그마한 선물이니 나눠 쓰세요”하며 한번도 거르지않고 선물을 주고 있었던단다. 기자가 이런 행동이 어떤 동기에 시작했는지 궁금해 하자 “내 철학은 한잔 얻어 먹으면 두잔 사주

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다면 수위직으로 중고생 자녀들에게 장학기금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한다. 또, 그간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하든지 하는 질문에 “학교에서 말하는 인연 ‘사람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출생식 모

려는 소박한 모습속에서만이 남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수 있겠다 여겨졌다. 이 글을 작성해 영근 과일만큼이나 호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무쪼록 동학내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기자는 연구실을 나왔다. <김경숙(기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저희 문화부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소설·수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시고 싶어요. 실리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됩니다. 동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화부>

대안
△姑息之計란 말이 있다. 임시방편이나 현재의 미봉책으로 일시적 안정을 위한 꾀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꾀까지 쓸까라고 생각해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다면 미봉책을 넘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따귀를 올려 부치는 격이라 무섭기까지하다. △대통령의 범죄와 전정전포 이후 사회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경찰관이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해 죽음을 이르게 하고 사전정당도 없이 학원에 난입해 학교수업을 방해하는등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가 창조적인 소수의 지도계급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고 그

창조적인 소수가 창조성을 상실할 때 그들은 지배계급이 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토인비가 소수 인텔리겐자에 의한 역사발전 이론을 주장한 엘리트사관학자이지만 창조적 소수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전략이라고 말할 부분은 긍정할만 하다. △며칠전 전대협이 장인 송갑석씨가 불법적으로 연

27시간동안이나 영장도 없이 구금되어있었다. 이런일들 모두가 보인사의 민간인사관문제로 공치에 풀린 민자당 정권이 법외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역사의 순리에 의하면 현재 민자당정권이 벌이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정권은 끝내 망해 버리고 말았다. 이승만이 그러했고 박정희가 그러 했고 전두환이 그러했다. 나만은 끝까지 살거라고 당사자들이 생각한다면 이런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의 비호아래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하나라면 당신의 억압으로 신을 하는 사람은 백이다. 역사의 단죄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자가 될 것인가. 하루만 하루만 더 숨을을 이어 갈 것인가. 선택하라/ 국민의 심판이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潘>

姑息之計

행, 구속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와 집시법위반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혐의내용상 경찰에게 조사를 받아야 할 송의장이 끌려간 곳은 다름이 아닌 인기부였다. 또한 송의장과 같이 있다가 함께 연행되었던 두명의 전담대생중 한명은 무려 1백

복지사업의 학생자치운영 첫 시발

월 매출액 1백만원으로 적자운영 못 벗어나 학복위와 연대,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학내 복지사업의 학생자치 운영은 학자투나 학복위 사업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현재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서점, 식당등 학내복지사업의 운영이 외부업체와 학교당국간의 계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교에서 지난해 27일 개장하여 6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불교서적·용품 판매점 ‘심우장’은 학내 복지사업에 있어 학생자치 운영의 첫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개장이전부터 공간확보문제로 학교측과 계속적인 마찰을 빚었고, 일부 교수들은 “학생이 무슨 장사냐”는 식의 반발을 보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심우장 개장준비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고 불대학생들의 단합된 힘이 바탕이 되어 중앙학복위의 연대속에 개장을 하게 되었다. 현재 불대학생 3명에 의해 운영되는 심우장은 원서를 포함한 전공서 1백여권과 불교소개책, 예제이집등 교양서 9백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불대교수의 추천으로 인도불교관련책자가 다수 판매되고 있다. 현재 고려원동 10여개 출판사와 계약하여 거래를 하고 있지만 출판부나 역경원과의 도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일 아침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되는 심우장은 경영상·계정상 여러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3명의 학생으로 경영이 무리라는 점, 경영실무 미흡등을 들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앙학복위의

연대사업, 전 학생의 복지사업, 학생자치운영에 대한 인식변화가 급선무이다. 물론 심우장의 사업이 불교관련책자나 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의 첫 시발점이라고 볼 때, 중앙학복위의 수익금이 장학금이나 학생편의등 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듯이 심우장 수익금도 한 학생복지사업에 쓰여진다는 학생복지사업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개장초에는 월 3백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요즘은 월 1백여만원으로 재정상 어려운 시기이다. 더

우기 자본금없이 책 일체를 ‘선지급·후납부’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계약준불사와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내서점이 본래 10%정가 할인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고 식당·분식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심우장사업은 정가의 10%할인, 교재의 20%할인등 재정적 이점도 있지만 수익금의 재원이나 정보교환, 상담등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앞으로의 사업전개가 주목된다.

심우장은 단순히 불교관련책자나 용품의 판매장이라기보다 전 동아인들이 일구어야 하는 복지사업의 첫 시도이다. 물론 심우장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학생들의 심우장에 대한 관심, 태도여하에 따라 학생복지사업의 전개는 확장이나 위축이나의 갈림길에 놓일 것이다.

앞으로 2년여의 심우장경영으로 근로장학금과 불교문화행사, 불교포도사업, 단대문화행사에 지원될 수익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심우장을 단지 불교서적 판매장으로 치부하기에는 학생복지사업이나 학자투·학복위의 위상에 있어 그 역할이 너무도 크다 하겠다. <이병민(기자)>

문화대선

달패마당극 ‘빨갱이와는 말을 않겠다’

동아리 달패의 제13회 정기공연인 마당극 ‘빨갱이와는 말을 않겠다’가 오는 2일 낮 12시 불상당에서 열린다. 이번 마당극 ‘빨갱이와는...’은 한국전쟁휴전협상중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있는 인민군병사들이 갖은 죄와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의지를 지켜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세계명화 3백년전

세계명화 3백년전

주한프랑스대사관문화원과 한국프랑스 문화예술협회주최 ‘세계명화 3백년전’이 오늘(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잠실롯데미술관(7층)에서 열린다. 서양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들의 작품이 총망라된 이번 전시회는 유럽유화의 진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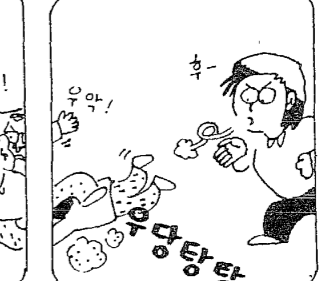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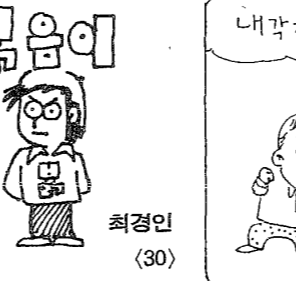
동학의리

동학로

많은 동학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자국을 내리는 곳. 학생회관앞에서 분관까지 이어진 오르막길을 ‘동학로’라 부르며 이 동학로란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학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동학로’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학림관앞에 자리잡고 있는 ‘東岳先生講堂’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시단은 자리잡고 있는 터는 조선초기의 문인이며 중종때 左相을 지냈던 李沆의 외가가 있던 곳인데 이후 德水李氏의 서윤집터가 되고, 그 중손인 東岳李安諤선생이 살아 이분과 德水文獻의 거점이 되었다 한다. 그 당시 이곳은 동학선생을 중심으로 당대의 명인이 이호민과 권필등이 어울려 시를 읊조리며 시단에 앞장서 가회들의 노랫가락을 즐겼다 한다. 또한 목석산 일대에 대나무와



그렇다면 ‘동학로’는 과연 어디에서 유래 되었을까? 1940년대 본교가 지금의 자리에 자리잡은후 ‘사색로’라는 다분히 낭만적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후 학생들이 동학선생을 기리어 동학로라 불렀다 한다. 한편 1985년 8월15일 문화대 뒤편 남산산책로를 만들며 동학로개통기념비를 세워 동학로의 위치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동학선생을 기리는 의미와 ‘동쪽의 산’이라는 의미가 혼합된 것으로 학생회관 앞길에서 부터 남산 산책로까지를 동학로로 보면 되겠다. <문화부>



공작정치! 음모정치! 남아 일면 공천금! 후- <동대신문>

“그런다고 무너질 전대협이 아닙니다.”

전대협은 구국의 강철대오입니다. 의장을 구속시킴으로써 하여 무너질 전대협이라 생각하였다면 착각입니다. 그런다고 무너질 전대협이라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법외와의 전쟁이 애국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위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시위의 교문봉쇄, 학내진입, 화염병투척자 책임추적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적들과 송갑석전대협의장에 대한 연행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수 없는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만학도의 단결 조직,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 살아있고 백만학도가 살아있고 백만학도의 애국적 열정이 살아있기에 자신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손으로 ‘전쟁포’가 된 송갑석 의장을 구해내고 이 땅의 통일과 완전한 민주승리를 위해 나아갈것입니다. <송갑석 전대협의장의 즉각적 석방을 원한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새날을 여는 민족주인공의 선포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
장기집권 획책음모 내각제개헌 결사반대한다!